금수강산

1

주체109(2020)
루계 제365호 월간

 ISSN 1727—9062

불타는 소원

2.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랑을 이어주시며
인민위한 한길만을 언제나 걸으십니다
우리 운명 우리 행복 원수님께 달려있기에
천만자식 소원은 하나 원수님의 안녕입니다

3. 친근하신 그이 모셔 강산은 따뜻하고
영명하신 그이 계셔 미래는 창창합니다
우리 운명 우리 행복 원수님께 달려있기에
하늘땅도 소원하는 원수님의 안녕입니다

새해를 맞는 학생소년들

새해를 맞으며 이르는 곳마다에서 학생소년들의 기쁨의 웃음소리 넘쳐나고 행복의 노래소리 울려퍼지고있다.

김일성광장에서 팽이치기, 제기차기, 연띄우기, 줄넘기를 비롯한 다양한 민속놀이를 진행하는 학생소년들의 모습은 희망찬 래일을 그려보게 한다.

본사기자 김춘혁

차 례

편집: 박철만

새해를 축하합니다

주체109(2020)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잡지 《금수강산》편집부는 언제나 조국을 그리워하며 언어도 피줄도 같은 자기 민족을 위해 애국애족의 한길을 걸어가고있는 해외동포여러분에게 열렬한 동포애의 정을 담아 새해인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잡지 《금수강산》을 고향에서 보내온 편지로, 사진첩으로 애독해주신 독자여러분께 따뜻한 인사를 드립니다.

이 순간 우리 서로 뜨거운 눈길들을 주고받지 못하고 끊을수 없는 혈육의 정과 사랑이 피부로 직접 닿지 않아도 해외동포여러분의 건강과 안녕,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해가 바뀔수록 더욱 두터워지고있습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이와 성별, 국적은 서로 달라도 우리는 언제나 한 민족임을 자각하고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도 여러분은 조국과 숨결을 같이하며 나라의 부강번영과 통일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잊을수 없습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적명절들과 중요계기때마다 여러분은 축하단과 예술단을 뭇고 조국을 찾았으며 많은 축전과 축하편지, 꽃바구니도 보내왔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중국의 습근평주석과 여러차례 상봉하시여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더욱 강화하시였고 로씨야의 뿌찐대통령과도 만나 우의를 두터이 하시여 우리 조국의 권위가 비상히 높아진 지난해에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다시한번 안아보던 동포여러분이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적대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에도 끄떡없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하여 만리마의 속도로 질풍노도쳐 달리는 조국인민과 걸음도 마음도 함께 할 불같은 결의밑에 성심성의껏 지성을 다하여온 동포들의 수고도 헤아릴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힘을 합쳐 걸어온 한해를 보내며 보다 큰 승리가 마련될 새해를 맞이하고보니 동포여러분과 함께 우리모두 굳게 손잡고 신심드높이 걸어가야 할 희망의 길이 눈앞에 보이는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맞이한 새해,

이해에도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는 조국청사에 특기할 사변들이 일어나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믿고싶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희망과 신심에 넘쳐 새해에도 조국인민들과 발맞추어 부강한 조국, 통일된 조국을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리라는것을.

동포여러분, 올해는 조선로동당창건 75돐과 조국해방 75돐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금 조국인민은 올해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이기 위한 열의에 넘쳐있습니다.

조국인민의 그 드높은 열의와 애국으로 불타는 마음들에 해외동포여러분의 마음과 지성도 합쳐지리라는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나라와 민족의 번영은 결코 그 누구의 선사품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우리 민족자신의 힘으로 강국건설도 다그치고 통일도 앞당겨와야 하는것입니다.

우리 《금수강산》편집부는 뜻깊은 올해에도 잡지를 통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이룩되고있는 경이적인 사변들을 비롯한 조국소식들과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에 대하여 널리 소개할것이며 동포여러분의 애국애족활동도 지면에 아낌없이 담을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기쁨과 행복만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금수강산》편집부

끝없이 이어지는 인민사랑의 길

문수물놀이장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늘처럼 여기고 사랑하신 인민을 수령님들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받드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민관이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에는 인민에 대한 열화와 같은 믿음과 사랑이 담겨져있다.

조국땅에 울려가는 인민의 웃음소리, 생산의 동음이 높이 울리는 창조물들과 생산기지들에는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신성한것은 없다는 인민사랑의 열과 정을 지니시고 헌신의 길을 이어가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지도의 자욱자욱이 력력히 새겨져있다.

그 자욱자욱을 더듬어볼수록 그이께서 처음으로 인민을 위한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건설을 구상하시던 주체101(2012)년을 잊을수 없다.

당시로 말하면 위대한 장군님을 뜻밖에 잃고 새로운 주체100년대를 맞이한 때여서 인민들은 물놀이와 승마에 대해서는 생각도 해보지 못하였다. 더우기 경제건설과 국방강화를 위해 한푼의 자금도 귀중하던 때였다.

하지만 당을 따라 오직 한길만을 걷는 인민, 고난속에서도 미래를 락관하며 최후승리를 향해 꿋꿋이 나아가는 인민들이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향유하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은 확고하시였다.

훌륭한 문화휴식터들에서 기쁨의 웃음꽃을 한껏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시는듯 그이께서는 환하게 웃으시였다. 그때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을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절감하였다.

참으로 이것은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것이라면 무엇이든 안겨주고싶어하시는 그이만이 내리실수 있는 결심이였다.

자신의 그 결심을 실천하시기 위해 그이께서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건설에 바치신 헌신과 로고는 이루 헤아릴수 없다. 여기에서 그이께서 절대적기준으로 삼으신것이 인민대중제일주의이다. 아무리 훌륭한 창조물이라고 해도 그것이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위한것이 아니라면, 인민의 편의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된다면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문수물놀이장건설형성안만 해도 113건이나 지도해주시고 완성의 묘안도 가르쳐주시며 낮과 밤이 따로없이 건설장을 찾고 또 찾으시였다. 그리고 공사가 완공되였을 때에는 일군들이 먼저 리용해보면서 미흡한 점이 없는가를 확인해보도록 하시였으며 완전무결하다고 할 때 준공식을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이렇게 인민을 위한 훌륭한 봉사기지들을 꾸려주신 그이께서는 그후 마식령스키장과 릉라인민유원지, 옥류아동병원, 과학기술전당,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류경안과종합병원,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 금산포젓갈가공공장 등 미처 그 이름을 다 꼽을수 없을 정도의 창조물들을 일떠세우도록 이끌어주시여 인민들이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여주시였다.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

로라스케트장에서

려명거리

그 나날에 마식령스키장에 가시여서는 몸소 삭도도 타보시고 릉라인민유원지를 찾으시여서는 유희장의 회전매를 타보시며 유희기구의 안정성을 확인하시였고 평양무궤도전차공장에서 생산한 새형의 무궤도전차를 보시고서는 자신께서 타보아야 마음을 놓겠다고 하시며 인민을 위한 첫 《손님》이 되여주신 그이이시다. 그리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이 어느것을 좋아하는가, 무엇보다 인민들이 편리해야 한다, 인민들에게 친절해야 한다, 인민들을 위한것인데 무엇을 아끼겠는가, 인민을 위하여 꼭 하고싶었던 일이다, 인민들이 당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당은 인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시며 일군들이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해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언제인가 어느 한 도의 일군들이 육아원, 애육원, 초등학원,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보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선물을 전달한 정형과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그이께 보고드리였을 때였다.

그때 일군들이 올린 문건을 반갑게 받아보신 그이께서는 그곳 일군에게 한결 마음이 놓인다고, 일군들이 항상 관심을 두고 육아원, 애육원, 양로원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수시로 료해하면서 책임적으로 풀어주도록 하라고, 이제는 춥다, 춥다고들 하는 겨울이라고, 아이들과 늙은이들의 건강을 잘 돌봐주고 특히 아이들이 부모잃은 설음을 모르게 밝게 키워야 하겠다고 하시며 친필을 보내주신 그이이시였다.

이것은 인민에 대한 그이의 사랑을 전하는 일화들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새집들이한 평범한 근로자들의 가정을 찾으시여 사랑의 축배도 부어주시고 인민들이 리용할 유원지의 의자모양까지도 그림으로 그려주시였으며 아이들을 위한 현대적인 의료봉사기지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하여 건설장의 진창길을 앞장에서 걸으신 하많은 사연을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다.

그런 그이이시기에 전사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인민이 불행을 당하였을 때면 그처럼 가슴아파하시며 주실수 있는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였다.

조국수호의 길에서 목숨을 바친 인민군전사들의 묘주가 되시여 묘비에 자신의 이름을 써놓도록 하신 이야기는 인민들속에 사랑의 전설로 전해지고있다. 그리고 5년전 라선시큰물피해때에도 그러하였지만 몇해전 조국의 북부지역에서 처음보는 대재앙을 당하였을 때에도 자신께서 사랑하는 인민들이 한지에 나앉았다고,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고 하시면서 당시 한창 진행중이던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을 북부피해복구전선으로 정하시고 복구전투를 위한 중대조치를 취해주신 그이의 불같은 사랑속에 불과 60여일만에 피해지역에는 수많은 살림집과 새 거리, 새 마을이 일떠서게 되고 피해지역 인민들이 한날한시에 새 집에 보금자리를 펴게 되였다.

그렇게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그이이시였지만 어느해 신년사에서 인민을 떠받들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시며 다음해에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인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찾아할 결심을 가다듬으시였다. 그리고 새해 정초부터 시작된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년말까지 이어가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이께서는 보통의 각오와 의지로는 엄두조차 낼수 없는 초인간적인 정력을 바치시며 인민을 위해 1년 365일을 불철주야의 강행군으로 이어가시였다.

지난해에도 그이께서는 삼지연시와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경성군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건설장들에 대한 인민사랑의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걸으시였다.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지난해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는 현대적인 천수백세대에 달하는 농촌살림집들이 일떠서 한날한시에 새집들이하는 경사가 펼쳐지게 되였다.

볼수록 멋있는 집도 그러했지만 금시 뽑아먹어도 될 싱싱한 남새들이 꽉 차있는 터밭이며 마가을의 추위까지 념려하여 땔감을 차곡차곡 쌓아놓은 창고, 집짐승우리며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나 일일이 마음쓰신 흔적이 어려있는 모습을 보고 집주인들은 눈시울을 적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드리였다.

인민의 기쁨을 더없는 락으로 여기시고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찾아할 결심을 가다듬으시며 오늘도 그이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신다.

글 본사기자 강은순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일 화◇

언제나 인민을 첫자리에

마음쓰신 문제

주체104(2015)년 11월 원산구두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구두를 생산하고있는 작업현장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현장의 여기저기에서 쉬임없이 생산되여나오는《매봉산》구두들이 시간이 다르게 쌓이고있는 광경을 만족하게 바라보시였다. 그날 그이께서는 공장에 구두풍년이 들었다고 하시면서 지금 원산구두공장에서 구두생산을 정상화하고있는데 생산정상화라는 말에는 단순히 생산을 쉬임없이 진행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인민들의 기호와 수요에 맞게 구두를 생산하여 인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의미도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구두가 상점에 나가 체화되면 생산을 정상화하는 의의가 없다고, 원산구두공장에서 생산하는 구두가 경공업전시회나 신발전시장에 내놓는 전시품처럼 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은 일군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구두풍년이 들었다고 그리도 만족해하시면서도 인민들의 수요와 기호에 맞는 구두를 더 많이 만들도록 깊이 마음쓰시는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인민의 충복으로서 일을 더 잘해나가야겠다는 마음을 다지였다.

인민을 첫자리에

주체101(2012)년 4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완공을 앞둔 인민극장을 돌아보실 때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인민들이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서의 삶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또 하나의 대기념비적건축물이 일떠선데 대하여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그러시던 그이께서는 1 500석원형생음극장을 둘러보시며 생각에 잠겨계시였다.

잠시후에 하시는 그이의 말씀은 참으로 뜻밖이였다.

그이께서는 1 500석원형생음극장에 중앙관람석을 따로 만들어놓고 거기에 쏘파를 놓았는데 그것을 없애야 하겠다고, 자신께서는 앞으로 이 극장에 공연을 보러 올 때에는 인민들이 앉는 의자에 앉아 공연을 관람하겠다고 다정히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자그마한 특전이나 특혜도 절대로 불허하시였다고 다정히 말씀하시면서 중앙관람석을 없애고 대신 관람석의자를 더 놓으면 좌석수도 늘어날것이라고 이르시였다.

이렇게 되여 1 500석원형생음극장에는 지금과 같이 중앙관람석이 없어지고 대신 그만큼 일반관람석이 더 늘어나게 되였다.

그후 그이께서는 인민극장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개관공연을 인민들과 허물없이 보통좌석에 앉으시여 관람하시였다.

하나를 생각하고 한걸음을 내짚으시여도 인민을 생각하시고 인민들과 단 한치의 간격도 없이 그들속에 자신의 삶을 두시려는 그이의 모습앞에서 이날 인민들은 커다란 충격과 감동을 받아안았다.

몸소 첫 《손님》이 되시여

주체102(2013)년 12월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완공된 마식령스키장을 찾으시였다.

마식령지구의 특색이 잘 살아난다고, 흠잡을데가 없다고 대단히 만족해하시면서 그이께서는 삭도의자에 오르시였다.

너무도 뜻밖의 광경에 일군들은 그이께 시운전중에 있는 삭도를 타시는것은 위험하다고 말씀올리였다.

그러나 그이께서는 인민들이 리용할 모든 주로들을 다 보겠다고 하시며 차거운 삭도의자에 앉으시여 마식령 대화봉정점으로 향하시였다.

인민을 위하여, 삭도의 안전가동을 위하여 자신께서 스키장의 첫《손님》이 되신것이였다.

주체107(2018)년 2월초 어느날 깊은 밤 새형의 무궤도전차가 평양시내의 밤거리를 달리고있었다.

인민들이 리용할 무궤도전차에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자신께서 타보아야 마음을 놓겠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첫 《손님》이 되시여 전차에 오르시였다.

이날 깊은 밤의 피로도 다 잊으신듯 그이께서는 무궤도전차의 기술상태를 하나하나 확인하시면서 완충장치도 좋고 진동과 소음도 없으며 속도도 괜찮다고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정녕 그이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인민만이 있었다.

본사기자

오로지 인민뿐입니다

머지않아 새해를 맞게 되니 이 가슴속에 차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명절분위기로 더욱 흥성일 우리 백화점의 모습을 그려보느라니 명절과 일요일 가림없이 인민을 위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생각이 못 견디게 간절해집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였습니다. 주체108(2019)년 4월 7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개건된 우리 대성백화점을 찾으시였습니다.

별들도 조으는 깊은 밤 너무도 뜻밖에 그이를 만나뵙게 된 저는 크나큰 기쁨과 함께 그이의 로고가 어려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미 그달 초에만도 수천리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삼지연시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그이이시였습니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겹쌓인 자신의 로고는 다 잊으신듯 백화점의 1층부터 5층까지의 매장들을 다 돌아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화점이 훌륭히 꾸려진 결과 수도시민들에게 질좋은 갖가지 식료품들과 의복, 신발들, 가정용품들과 일용잡화들, 학용품들과 문화용품들을 더 많이 보장할수 있게 되였다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습니다.

1층의 드넓은 슈퍼마케트 식료품매대들을 돌아보실 때에는 진렬한 식료품들이 우리 나라 식료공장들에서 생산한 제품들이라고, 우리가 만든 식료품들을 보기만 하여도 흐뭇하다고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습니다.

이르시는 곳마다에서 그이께서 제일먼저 관심하신것은 우리의것, 우리의 제품이였습니다. 지은옷매대와 화장품매대에 가시여서는 우리 나라에서 생산한 옷들과 신의주화장품공장의 제품들을 먼저 살펴보시였고 학용품매대에 가시여서는 《민들레》학습장도 있다고 매우 기뻐하시였습니다. 원산구두공장에서 만든 남자구두를 보아주시면서는 이제는 이 공장이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는 공장으로 되였다고 하시면서 우리 상품을 많이 내놓고 팔데 대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습니다.

우리의것, 불러볼수록 가슴이 젖어듭니다.

인민들에게 행복을 안겨주시려 온 나라가 자력자강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게 하시고 그 앞장에서 헌신의 길을 이어오신 우리 원수님이십니다. 때로는 차디찬 폭설을 헤치시며 북방의 산골군을 찾으시고 때로는 온몸을 땀으로 화락하니 적시시며 삼복의 불볕아래 동해안의 건설장을 걷고걸으신 그이의 열화같은 열정의 세계는 이루다 헤아릴수가 없습니다.

우리 백화점의 개건과정만 놓고보아도 그이께서는 자체의 힘으로 멋쟁이백화점을 일떠세우도록 개건형성안과 건설력량, 상품구입과 진렬, 마크도안과 불장식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지도해주시였습니다.

주체107(2018)년이 다 저물어가던 마지막일요일에도 백화점의 상품보장문제며 지열에 의한 랭난방체계수립 등 크고작은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느라 귀중한 하루를 바치시였습니다.

이렇듯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그이의 진정에 떠받들려 오늘 우리 백화점은 상업, 편의, 급양시설을 갖춘 종합적이고 다기능화된 봉사기지로, 어른들로부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사람들 누구나가 즐겨찾는 백화점으로 전변되게 되였습니다.

마음속에 오로지 인민뿐이신 그이는 진정 저뿐만아니라 우리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심장속에 가장 친근하고 자애로운 어버이의 모습으로 간직되여있습니다.

우리 백화점안의 봉사자들은 자나깨나 그리운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진 결의대로 앞으로도 인민의 충복이 되기 위해 힘껏 일할 열의에 넘쳐있습니다.

대성백화점 점장 류현옥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사상

오늘 조국에서는 인민을 위한것, 인민적인것이 최우선시되고있다.

도시로부터 산골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를 가보아도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을 지니고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일군들을 볼수 있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넘겨주신 인민을 위한 계주봉에 멸사라는 두 글자를 새겨넣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연설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를 비롯한 많은 로작들에서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사상을 천명하시였다.

그이께서 내놓으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고 인민을 위해서는 천만금의 재부도 아끼지 않으며 지어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며 헌신이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사상은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는 사상이다.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것은 인민에 대한 사랑이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하는것보다 숭고한 사업은 없다.

또한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모든 사업의 절대적기준으로 되고있다.

조국에서는 당과 국가의 모든 로선과 정책이 철저히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세워지고있다.

지금으로부터 4년전 함북도 북부지역에서 엄혹한 자연재해로 하여 많은 인민들이 피해를 입었던 그때 그이께서는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셔주는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은 없다고 하시면서 난국을 타개할 중대결단을 내리시였다.

그것은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이 곧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혁명적당풍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었다.

새집들이를 하는 인민들에게 많은 생활필수품을 보내주도록 하시고 식량과 겨울나이용땔감을 마련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신 그 사랑이 너무도 고마와 천지개벽된 조국의 북부지구에서는 인민들이 심장으로 터치는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졌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사상은 인민을 위하여서는 천만금의 재부도 아끼지 않으며 지어 생명도 서슴없이 바칠데 대한 사상이다. 이것은 인민에 대한 사랑중의 사랑이며 위대한 헌신이다.

그이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인민을 받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였으며 전당에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신이 꽉 차넘치게 해주시였다.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상으로 새겨안으시고 그이께서 이어가시는 인민의 행복을 위한 멸사복무의 자욱자욱은 이 땅 그 어디에나 력력히 새겨져있다. 인민을 위함이라면 아슬아슬한 삭도와 시운전하는 경비행기에도 오르신 그이이시였다.

늘 강조하시는것도 인민의 편의와 리익에 대한 문제이고 건축물을 하나 세워도 인민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그이의 뜻과 의지에 의해 조국에서는 날에 날마다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이 일떠서고 인민의 웃음소리 넘쳐나고있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 더없이 숭고하고 위대한 이 사상이 있어 인민의 만복이 꽃펴나는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황광윤

산간벽촌의 새집들이

주체108(2019)년 10월 6일, 이날은 평범한 날이였다.

하지만 한적한 두메산골로 알려졌던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의 인민들에게는 이날이 평범한 날이 아니였다.

그것은 이날에 이들이 한날한시에 새집들이를 하였기때문이다.

새집들이를 하는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의 주민들의 얼굴마다에는 기쁨의 물결이 출렁이였다.

휴양지의 풍치를 돋구며 산간지대의 특성에 맞게 소층과 단층살림집들이 조화롭게 일떠선 농촌마을에서 옛 모습을 찾아볼수 없다.

선경으로 변모된 살림집들에는 살림방들과 부엌, 세면장, 위생실 등이 생활에 편리하게 꾸려져있어 새 주인들이 맨몸으로 들어가 살수 있게 되여있다.

생활에 당장 필요한 가구들과 부엌세간들, 땔나무, 부엌창고에 쌓여져있는 충분한 석탄을 보는 주인들의 눈가에는 뜨거움이 맺혀있었다.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들이 쓰고 살 집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도록 하여주고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준공보다 먼저 새집들이를 하여준 나라의 고마움에 가슴이 뜨거워만졌던것이다.

실로 그러하였다.

나라에서는 인민들이 추위에 고생하지 않도록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완공보다 먼저 새집들이를 하도록 하였다.

하기에 양덕군 온정리, 삼계리, 은하리, 통동리, 일암리, 강원도 법동군 상서리 등에서 새집들이를 하는 주민들은 나라의 고마움에 눈굽을 적시며 흥겨운 춤판을 펼쳤다.

양덕온천문화휴양지의 농촌마을들에 새로 일떠선 주택에 입사한 농민들과 주민들은 그림같이 황홀한 새 집을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고보니 정말 꿈을 꾸는것만 같다고 이구동성으로 흥분된 심정을 터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9.18사변

(전호에서 계속)

그리하여 동북변방군의 30만 대군은 자기 무장력의 25분의 1도 못되는 관동군에게 밀려 무진장한 자연부원을 가지고있는 광대한 만주땅 전체를 버리고 패주하게 되였다.

나는 망국의 비분에 젖어 통곡하는 진한장에게 말했다.

《이제는 그 어떤 당파나 군벌이나 정치세력도 믿을수가 없게 되였소. 오직 자기자신과 자신의 힘만을 믿어야 하오. 대세는 우리들자신이 민중을 무장시켜 반일전에 나설것을 요구하고있소. 살길은 무장을 잡는데 있소.》

진한장은 말없이 나의 두손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았다.

나는 그날 진한장의 기분을 돌려세우려고 온종일 그와 함께 보냈다. 망국의 설음으로 말하면 사실 진한장보다도 내가 더 많았다. 진한장은 조국의 일부를 떼운 사람이였지만 나는 하나의 옹근 조국을 송두리채 잃어버린 망국민의 아들이였다.

진한장이 자기 집으로 가자고 간청하는 바람에 나는 다음날 그를 따라 돈화로 향하였다.

9.18사변은 조선과 중국뿐아니라 온 세계를 뒤흔들어놓았다. 일본이 조선을 삼킬 때 경악을 금치 못했던 세계가 9.18의 포성에 다시한번 비명을 질렀다. 인류는 그것을 새로운 세계대전의 시작으로 보았다.

일본이 이 사변을 중일간의 교섭으로 해결할수 있는 지방적인 돌발사건으로 묘사했지만 세상사람들은 그것을 곧이듣지 않았다. 공정한 세계여론은 일본의 만주에 대한 공격을 주권국가에 대한 란폭한 침략행위로 규탄하였으며 일본이 강점지역에서 철병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미제를 선두로 한 제국주의자들은 일본의 창끝이 쏘련으로 돌려지기를 은근히 기대하면서 일제의 침략행위에 대하여 동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국제련맹이 만주에 릿튼조사단을 파견하였으나 그 조사단도 정의의 편에 서서 흑백을 똑똑히 갈라내지 못하고 모호한 립장을 취하였으며 일본을 침략자로 규정하지 못하였다.

전쟁의 포성이 대륙을 뒤흔들고 일본군의 맹공격에 장학량군벌의 막강한 대군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져 총퇴각한 사실은 수억만사람들의 의기를 꺾어놓았다. 청일전쟁과 로일전쟁의 승리에서 생긴 《무적황군》에 대한 신화는 한갖 신화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되였다. 피눈물나는 분노와 함께 공포의 파도가 조선과 만주는 물론, 온 아세아대륙을 휩쓸었다. 그 공포의 파도속에서 모든 무장력과 정치세력, 혁명단체, 형형색색의 우국지사들과 저명인사들은 자기의 본색을 적라라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9.18사변의 폭발은 붕괴상태에 있던 독립군잔여세력의 대부분을 산간오지로 몰아넣었으며 실력배양을 고창하던 사람들을 일제의 품으로 밀어던지였다. 독립군들이 손때묻은 총을 땅에 묻고 어깨를 움츠리며 고향으로 돌아갈 때 민족개량주의자들은 친일을 부르짖었다. 독립선언을 련발하며 구국항쟁을 웨치던 우국지사들이 《망향가》를 부르며 황황히 해외로 망명하였다. 이전날의 활동거점들을 버리고 퇴각하는 장학량군의 뒤를 따라 금주로, 장사로, 서안으로 달아나는 독립운동자들도 있었다.

애국과 매국, 반일과 친일, 자기 희생과 보신을 가르는 착잡한 분해과정이 9.18의 포성과 함께 민족내부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였다. 각자가 자기의 인생관에 따라 양극에도 가붙고 음극에도 가붙었다. 만주사변은 민족의 매 성원들의 동향과 본심을 식별하는 하나의 시금석과도 같은 작용을 하였다.

우리는 그때 돈화에서 진한장과 함께 며칠을 두고 9.18사변에 대한 론의를 계속하였다. 우리도 처음에는 몹시 당황하였다. 무장을 들 때가 되였다는 판단은 쉽게 하였으나 일본군이 사태처럼 쓸어드는 정국에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였다. 그러나 침착성을 인차 회복하고 사태발전을 랭철하게 주시하였다.

그 당시 나는 일제의 만주침략이 조선혁명에 끼치는 영향을 두고 많은 생각을 하였다.

일본군의 만주출병이 현실로 되고 만주점령이 기정사실로 됨으로써 우리는 자기곁에 적을 두게 되였다. 《미쯔야협약》과 같은것을 턱에 걸고 일본관헌들이 몇해동안 중국반동군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선독립운동자들과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탄압을 심하게 하였지만 조선땅에 있는 군경들이 월경하여 만주에 들어오는 실례는 드물었다. 중국과의 협정에 의하여 일본군경들이 넘어오는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여있었다.

만주지방에서 조선혁명가들을 색출하고 잡아가는것은 대체로 이 일대에 와있는 일본령사관 경찰들이 하였다.

만주사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일대에 조선강점군이 들어오지 못하였다. 로씨야공민전쟁당시 씨비리를 들이쳤다가 철수할 때 중국측의 량해를 얻어 훈춘에 떨어진 두개 중대력량이 동북지방에 주둔하고있는 조선강점군의 전부였다.

그러나 9.18사변과 함께 만주는 일본군대의 란무장으로 전변되였다. 조선에서도 상해에서도 일본에서도 수만명의 일본군대가 떼를 지어 만주땅으로 밀물처럼 밀려들었다. 만주대륙은 적아가 한데 엉켜돌아가는 최전선으로 되였다. 조선과 만주를 갈라놓고있는 국경은 사실상 일본군의 침공과 함께 제거된셈이였다.

일본군에 의한 만주강점은 의심할바없이 이 일대를 활동거점으로 삼아온 우리들의 투쟁에 험악한 난국으로 되지 않을수가 없었다. 일본이 만주를 침공한 본심의 하나가 이 일대에서 앙양되는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교살하고 조선국내의 치안유지를 용이하게 하자는데 있는것만큼 우리는 금후 자기의 활동에서 여러모로 일본군경들의 위협을 받게 되리라는것을 각오해야만 하였다.

조선국내에서 적용되던 《신치안유지법》의 쇠몽둥이는 만주지방 조선사람들의 머리우에도 떨어지게 될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일본이 만주에 괴뢰국가를 세우게 되면 우리에게는 그것도 하나의 커다란 장벽이 될수 있었다. 실지로 그후 일본이 조작해낸 《만주국》의 존재는 우리의 활동에서 막대한 장애로 되였다.

일본의 만주강점은 이 일대에 울짱을 박고 살아온 수십만을 헤아리는 조선사람들의 생활을 도탄에로 몰아넣을것이였다. 왜적이 없는 고장에서 총독정치의 멍에를 쓰지 않아도 되였던 조선이주민들의 자유는 일장춘몽으로 끝나고 인정풍토가 생소한 이역에 삶의 터전을 옮긴 류랑민들의 리향은 무의미한것으로 될것이였다.

그러나 우리는 9.18사변을 두고 불리한것만을 생각하지는 않았다. 우리가 불리한 점들만을 따져보면서 비관과 영탄에 빠졌더라면 일어서지도 못하고 절망에 짓눌려 주저앉았을것이다.

나는 그때 어째서인지 《범의 굴에 가야 범을 잡는다.》는 조선속담을 생각하였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년을 두고 터득하고 정식화해놓은 그 인생철학이 나에게 심오한 진리를 귀띔해주었다.

(만주는 범의 굴로 되였다. 이 굴에서 일본제국주의라는 범을 잡아야 한다. 이제는 무장을 들고 투쟁할 때가 되였다. 이런 때에 싸워서 결판을 짓지 못하면 우리는 영영 사람구실을 못한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일어서야겠다고 단단히 결심하였다.

일제는 전쟁승리를 위하여 우리 나라에서 식민지통치를 강화하고 전쟁물자보급을 위한 경제적수탈에 미쳐날뛸것이다. 민족적모순과 계급적모순은 극한점에 달할것이며 조선민족의 반일기운은 고조될것이다. 우리가 무장대오를 조직하고 항일전쟁을 시작하면 인민대중이 물심량면으로 우리를 적극 지지성원해줄것이다.

중국의 수억만 인민대중도 거족적인 반일항전에 떨쳐나설것이다.

오늘의 만주침공이 래일에는 중국본토에 대한 침략으로 이어질것이며 중국대륙은 전면전쟁의 화염속에 휩싸이게 될것이다. 자주정신이 강한 중국인민이 자기 조국앞에 닥쳐온 위험을 수수방관하지 않으리라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우리의 곁에는 제국주의의 침략을 용허하지 않으며 민족적자주권을 수호할 일념에 불타는 중국의 수많은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자들, 자유와 독립을 사랑하는 수억만 중국의 형제들이 있다. 어제날 조선사람들을 망국민이라고 불쌍하게 여기던 그들이 래일은 단순한 동정자로부터 믿음직한 동맹자가 되여 한전호에서 같은 과녁을 향해 총을 겨누게 될것이다.

우리의 익측에는 언제나 중국인민이라는 위대한 동맹자, 동맹군이 있게 될것이다.

일본이 중국관내에로 전쟁을 확대하게 되면 구미렬강들의 리해관계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것이며 그것은 새로운 세계대전에로 가는 도화선으로 될것이다. 중일전쟁이 장기화되고 일본이 세계대전에 말려들게 되면 인적, 물적자원의 결핍과 고갈로 곤난을 겪게 될것이다.

일본이 만주를 먹는다는것은 그들이 통치구역을 더 넓힌다는것을 의미한다. 통치구역의 확대는 불피코 통치력의 약화를 가져오게 될것이다. 일본은 식민지를 통치하는데서 종전의 밀도를 보장하지 못할것이다.

온 세계가 일본제국주의를 침략자로 규탄하게 될것이며 일본은 국제적으로 고립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나는 이 모든것이 우리 혁명

에 전략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게 될것이라고 타산하였다.

장학량군이 총퇴각을 시작하고 일제침략군이 물밀듯이 쳐들어오자 우리 눈앞에서는 놀라운 사태들이 벌어졌다. 관공서의 관리들과 공안국의 경찰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사방으로 뿔뿔이 달아나버리였다. 며칠사이에 군벌통치의 지방기관들이 모두 문을 닫아걸었다.

장학량군의 패주와 함께 군벌통치체계가 마비된것이였다.

일제침략군은 전과를 확대하기에 급급하여 치안유지에 힘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만주지방에서는 한동안 무정부상태가 지속되였다. 우리는 일제가 대륙에 자기들의 통치체계를 새로 세울 때까지 얼마간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리라고 타산하였다. 이 공백상태야말로 우리들이 마음놓고 무장대오를 꾸릴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 호기를 놓쳐서는 안되였다.

혁명은 바야흐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있었다.

조선혁명앞에 부과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자가 무엇을 할것인가 하는 결단을 내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분골쇄신할 때가 온것이다.

9.18사변은 중국인민들에 대한 침략인 동시에 곧 이 일대에서 살고있는 조선인민들과 조선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침공이기도 하였다. 우리는 조선의 공산주의자로서 이에 응당한 대답을 해야 하였다.

나는 무장대오의 조직을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끝)

김정은시대 조선의 정치방식

세계에는 근 200개의 나라가 있고 자기나름의 정치방식이 있다. 하지만 인종과 국가와 제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것은 그 모든 정치방식들이 《국민을 위함》이라는 하나의 공약과 포스터를 내세운다는것이다.

모든 정치인들이 다 표방하는 민위주의 정치에 대하여 몹시도 만성화되였던 나는 최근년간 조선에서 류학하면서 느낀 점을 놓고 세계가 몹시도 알고싶어하는 **김정은**시대 조선의 실상을 말하고저 한다.

1. 강군념원의 실현

정치는 곧 힘이다. 정치에서 힘은 만유인력과도 같이 견인력과 안정성을 담보한다.

최근년간 세상사람들은 크지 않은 나라 조선에서 련이어 일어나는 힘의 분출을 수없이 목격하면서 대단히 놀라고있다.

나는 **김정은**원수님의 첫째가는 정치방향이 강군건설이며 그것은 가장 정당하고도 명명백백한 선택이였다는것을 절감한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진리는 항상 포구의 사거리내에 있다.》고 싸워서도 지켜내지 못하는 정의는 어느 한순간에 무참히 밟혀 사라질지 모른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쓰딸린이 중국에 군수공업이 없으면 어떤 세력이 흥분되였을 때 중국을 유린할수 있다고 말한것만 보아도 나라의 국방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통감할수 있지 않는가.

20세기 조선의 정치는 바로 이런 힘의 의지를 바탕으로 하여 자기 발전의 행로를 이어왔다. 두자루의 권총으로부터 혁명을 시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적군건설로선을 제시하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지난세기 90년대 중엽, 조선의 운명이 판가름되던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대이자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필사의 의지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선군정치를 펼치시였다. 조선의 선군의 길은 말그대로 초행의 길, 고난의 길, 신념의 길이였다. 조선인민은 위험한 순간에 자식이 엄마품에 더 꽉 안기듯이 그이의 두리에 더욱 똘똘 뭉쳐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난을 이겨냈다. 그이께서는 야전복차림에 렬차를 집으로 삼으시고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선군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그이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2011년 한해동안에만도 불편하신 몸으로 현지지도를 86차나 하시였으니 그 나날들에 얼마나 힘드시였겠는가. 정말이지 자신의 한평생을 쥐여짜면 인민밖에 남을것이 없다고 하신 그이의 말씀은 그 어느 정치가나 철학가들에게서도 들어볼수 없는 고귀한 인민사랑의 명언이다.

그이의 로고가 있어 헤아릴수 없는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조선은 다른 나라들이 돈으로 살수도 모방할수도 없는 선군의 사상과 일심단결의 힘을 가진 정치사상강국으로 부상할수 있었던것이다.

오늘 조선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강국의 지위를 확고히 인정받고있다.

그이께서는 일찌기 그 누구보다 선대수령들의 선군사상과 령군술을 깊이있게 터득하시였고 전군을 지휘하고 통솔하시여 새시대, 새 정세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무력건설을 창조적으로, 효률적으로 발전시키고계신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지난 9월 5일 공개한 전문가 패널의 반기보고서(3월-8월)에는 조선에서 금년에 진행한 신형무기시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

《지난 5월과 7월 신형단거리탄도미싸일(전술유도무기)시험을 통해 탄도미싸일방어체계(MD)를 관통할수 있는 능력을 증강했다.》, 《…고유한 미싸일유도시스템 생산능력을 확보했다.》

보다싶이 그이께서 이끄시는 인민군대는 나라보위, 인민보위의 길에서 일분일초의 멈춤도 없이 전진하고있다. 8월 24일 그이께서는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지도하시면서 정말 대단한 무기라고, 우리의 젊은 국방과학자들이 한번 본적도 없는 무기체계를 순전히 자기 머리로 착상하고 설계하여 단번에 성공시켰는데 총명하다고, 큰일을 해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오늘 무엇보다도 기쁜것은 새 무기개발과정을 통하여 주체적국방공업의 비약적발전을 떠메고 나갈 젊고 쟁쟁한 인재부대가 육성되고있는것이라고 하시였다.

2013년 3월 그이께서는 기존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이라는 전략적로선을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이라는 새로운 전략적로선으로 전환시키시였다. 그이의 전략적 결단으로 하여 조선은 제재와 압박을 받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과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나라의 전략적무기체계를 빠른 시간내에 빠른 속도로 완벽하게 완성하였다.

세계의 수많은 군사전문가들이 질풍같이 내달리는 조선의 전략무기건설속도에 놀라 그 비결을 알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아직도 정답을 찾지 못하고있다.

그이는 한 나라의 령군통수로서의 배짱과 재능을 만방에 떨치시였다.

조선이 3년간에 이룩한 핵전쟁억제력의 업적은 그 과정의 창조성, 효률성, 종합체계성으로 하여, 또 그 결과의 안전성, 효과성, 자위성으로 하여 세계군사사에 다시는 찾아볼수 없는 기록으로 영원히 남아있을것이다.

그이의 다른 한가지 독특한 령군술은 인민군대에 부여된 두가지 사명을 병진시키는것이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군창건 7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축하연설에서 《인민군대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애국적인 구호, 혁명적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고 불가능을 모르는 투지와 창조본때로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는 전투장들마다에서 무비의 영웅주의를 발휘하며 우리 조국의 면모를 더욱 아름답게 일신시켜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계속 앞장서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조선에는 군인건설자라는 말이 있다. 나의 리해로는 현역군인이 초소에 설 때면 직업군인이고 명령에 따라 나라의 중요건설현장에 투입되면 그 시각부터는 건설자로 된다는것이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라는 구호를 추켜든 군대는 지구상에 없다.

김정은시대 조선에서는 건설의 대전성기를 맞이하였으며 그 전구마다 단련되고 조직화된 군인건설자들이 건설현장을 전투장으로, 건설목표를 전투목표로 삼고 인민의 행복을 창조하기 위하여 과감히 투쟁하고있다. 인민은 성심성의로 군대를 원호하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의 사회적미풍으로 되고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조선에서는 처녀들이 대상자를 선택할 때 먼저 대방이 군사복무를 하였는가 안하였는가를 중요한 조건부로 내세운다고 한다. 전사회적으로 군인들이 군복무를 하는 동안에 조국에 바친 충실성과 헌신성을 인정하여주는 풍토가 너무나 잘 형성되여있다. 내가 관찰한데 의하면 총각이 군인이고 당원이면 한전호에서 생사를 함께 하려는 처녀들이 많을것 같다. 다른 나라의 군인들이 참으로 부러워할 일이기도 하다. 가사보다 국사를 더 중히 여기고 나라일과 자기의 일을 하나로 생각하는것이 이 나라 인민의 진모습이다. 조선인민군만이 지닌 두가지 사명으로 하여 앞으로 더 많은 영웅신화가 창조될것이고 군민대단결의 열화속에 생활의 향기가 더욱 짙어질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중국 연변대학 교수 김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박사후 과정을 공부하고있음.)

[주체108(2019)년]

애국애족의 천리길

사람이 홀로 천리길을 걷는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14(1925)년 1월 22일 당시 열네살 어리신 나이에 벌써 빼앗긴 조국, 수난받는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려는 맹세를 다지시며 력사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시였다.

정말 이 하나의 사실만을 가지고서도 위대한 수령님은 어릴적부터 애국애족을 천품으로 지니신분, 그이께서 걸으신 광복의 천리길은 절세의 애국자만이 걸을수 있는 혁명의 길이였음을 다시금 새겨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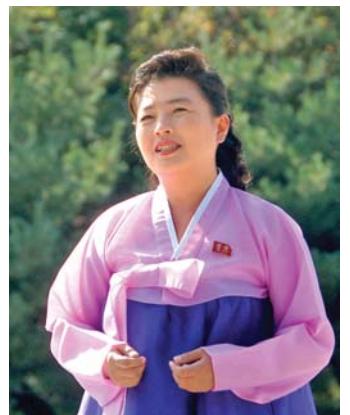
이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신 때로부터 95돐이 된다.

그러나 저의 눈앞에는 압록강가의 작은 조약돌을 감싸쥐시고 조국을 떠나시는 석별의 정을 안으시고 《조선아, 조선아, 나는 너를 떠난다. 너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몸이지만 너를 찾으려고 압록강을 건는다. 압록강만 건느면 남의 나라 땅이다. 그러나 남의 땅에 간들 내 너를 잊을소냐. 조선아, 나를 기다려다오.》라고 마음속으로 뇌이시면서 그 누군가가 지은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시던 그이의 모습이 가슴뜨겁게 어려옴을 금할수 없다.

일천구백십구년 삼월 일일은
이내 몸이 압록강을 건넌
　날일세
년년이 이날은 돌아오리니
내 목적을 이루고서야 돌아
　가리라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의 잊을수 없는 심리적체험에 대하여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나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수 있을가. 내가 자라나고 선조의 무덤이 있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날은 과연 언제일가 하고 생각하였다.

이런 생각을 하니 어린 마음에도 비감을 금할수 없었다. 나는 그때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눈앞에 그려보며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였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지신 그 맹세는 조국을 한시바삐 되찾고 조국땅에 기어이 인민의 나라를 일떠세우시려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맹세였다.

조국과 민족앞에 다지신 그날의 맹세를 지켜 위대한 수령님께서 헤쳐오신 혁명의 길은 참으로 간고한것이였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그때마다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실 때처럼 위대한 심장을 애국의 숭고한 뜻으로 불태우시며 20성상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길을 헤치시며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그리고 해방된 조국땅우에 새 조선을 일떠세우시고 가렬처절하였던 조국해방전쟁과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기초건설과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광복의 천리길에 력사의 자욱을 새기신 때로부터 수십성상에 이르는 그이의 정력적인 혁

명활동과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구원되였으며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조선이 일떠섰고 조국인민들은 자주로 긍지높은 보람찬 생활을 누리게 되였다.

진정 장구한 인류력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많았지만 위대한 수령님처럼 10대의 시절에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조국과 인민을 위해 이처럼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전설적영웅, 절세의 애국자를 우리 민족은 아직 모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신 혁명의 천리길은 오늘도 래일도 변함없이 이어가야 할 영원한 길이다. 하기에 력사에 길이 빛날 광복의 천리길과 더불어 조국인민은 더욱더 굳게 맹세다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신 혁명의 길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변함없이 이어나가리라고.

만경대혁명사적관 과장
최혜영

주체사상과 민족적자존심

오늘 조국은 력사의 온갖 도전속에서도 자기의 존엄을 지키며 강성번영의 활로를 따라 줄기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

외세의 간섭과 방해책동, 제재속에서도 끄떡없이 자기의 존재가치를 잃지 않았을뿐더러 주체조선의 위용을 온 세계에 더 힘있게 과시하고있는것이 오늘 조국의 모습이다.

하다면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인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력을 발휘해나가고있는데 있다.

민족적자존심은 자기 민족의 영예와 존엄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민족적자존심이 없이는 자주적으로 살수 없고 민족적독립과 존엄을 지킬수 없으며 참다운 번영을 이룩해나갈수 없다.

세계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으며 해당 나라와 민족이 처한 환경과 조건, 발전수준과 잠재력도 각이하다. 하지만 그 어느 나라나 민족을 막론하고 민족적자존심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나라와 민족이란 없다. 그러나 그것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고 어떻게 지키는가는 같지 않다.

민족적자존심은 결코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민족의 한 성원이라고 하여 저절로 가지게 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민족의 주인으로서 민족의 운명을 민족스스로 개척해나가려는 민족자주의식의 발현이다.

우리 인민은 그 누구보다도 민족적자존심이 높은 인민이며 그것은 바로 민족자주의 사상인 주체사상을 근본바탕으로 하고있다.

주체사상은 자주성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본질적속성이라는것을 새롭게 해명하고 그것을 사람의 생명, 나라와 민족의 생명으로 내세웠다. 자주성이 나라와 민족의 생명인것만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그 나라 인민이 주인이 되여 자기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가야 한다. 자주가 민족번영의 활로라면 사대와 외세의존은 망국의 길이다. 이것이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진리이다.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였기에 사대와 외세의존사상과 완전히 결별하고 철저한 민족자주의식,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닐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오랜 세월 사대주의에 물젖어 망국의 수치까지 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생활에서 근본적인 변혁을 일으키시였으며 우리 인민을 민족자주정신, 민족적자존심이 강한 인민으로 키우시였다.

해방후 일제식민지통치의 후과로 하여 텅빈 국고를 물려받은 조건에서 건국의 초행길을 헤친 우리 인민은 전후 빈터에서 맨손으로 복구건설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인민들은 앞서면 강자가 되고 뒤떨어지면 약자로 밀려나게 된다는 비상한 각오와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다는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으로 불과 1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완성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정립체계화하시고 우리 인민을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켜 혁명과 건설에서 민족자주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가도록 하는데 커다란 힘을 넣으시였다.

인민들은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조선혁명의 요구와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경제건설의 모든 문제를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갔다.

1990년대 중엽 제국주의자들의 가중되는 제재와 봉쇄속에서도 인민들은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력으로 주체화의 포성을 더 힘있게 울리며 자립적경제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나감으로써 적대세력들이 짜놓은 《붕괴》시간표를 번영의 시간표로 바꾸어놓았다.

고난과 시련속에서 신념으로 간직된 우리 인민의 민족자존의 정신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며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세여지고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사회주의조선이 힘있게 전진하고있을뿐아니라 날이 갈수록 온 세상에 자기의 존재가치를 부각시키고있는 비결은 핵무기와도 비교할수 없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있는데 있다고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이것은 다 우리 인민이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하고있는데 그 근본비결이 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 시기에도 그러했던것처럼 앞으로도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빛내여나갈것이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차영성

대상설비생산에 박차를

평안북도 신의주시 남신의주지구에 위치하고있는 락원기계련합기업소는 건설부문과 채취공업부문에 쓰이는 여러가지 대형기계와 대상설비를 생산하는 조국의 굴지의 기업소이다.

기업소는 지난 시기 굴착기와 회전식착정기, 대형산소분리기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대형기계와 대상설비들을 계렬생산하는 기계공장으로서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고 인민경제를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는데 적극 기여하여왔다.

기업소에서는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받들고 나라의 중요대상들에 보내줄 설비들과 각종 부속품, 협동품생산을 다그치고있다.

기업소 참모부서들에서는 다종다양한 설비들과 부분품들을 제때에 생산하기 위하여 모든 단위들에서 설비, 기술관리와 로력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매일 맡은 생산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한편 감속기직장, 일반기계직장, 대형조기직장을 비롯한 련합기업소의 그 어디에서나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과 집단적경쟁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있다.

이러한 열의속에 생산의 선행공정을 맡은 신포향주철직장에서는 전쟁이 끝나면 복구건설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던 전세대들의 강의한 의지대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보내줄 많은 규격품소재를 단 며칠동안에 생산보장하였다.

기업소에서는 기대공들의 절삭경기를 조직하여 제품의 질을 최대한 높이고있다.

생산과 지령장 엄영진은 《절삭경기에 대한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관심이 대단하다. 지난 시기에 비해 제품의 정밀도가 훨씬 높아졌다. 그리고 기대공들이 자기 공정뿐아니라 다음공정까지 관심하면서 호상협동하는 기풍이 직장마다 넘쳐나고있다.》라고 말하였다.

유압기구직장 볼반공 황영수, 청년직장 볼반공 오영걸을 비롯한 많은 기대공들은 기발한 착상으로 능률높은 가공지구들을 창안제작함으로써 가공공정들을 개선해나가고있다.

기업소에서는 굴착기생산과 대상설비생산을 활성화하는데서 나서는 수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고있다.

기사장을 비롯한 기술일군들은 세계를 앞서나갈 비상한 각오를 안고 첨단돌파전을 벌려 대상설비부분품의 수명을 늘이고 질을 높일수 있는 수십건의 기술혁신을 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이곳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대상설비생산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림정국

정밀도를 높인다.

적재기를 조립한다.

생산된 설비들을 건설장으로 보낸다.

높아가는 생산열의

구성방직공장은 조국해방전쟁시기인 주체40(1951)년에 세워진 공장이다.

전쟁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전시 천생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던 공장은 그후 나라의 방직공업기지창설강화와 직물생산에서도 공로가 큰 모체공장으로 알려져있다.

그 과정에 공장은 여러차례의 설비갱신과 생산능력확장으로 물질기술적토대가 비할바없이 강화되여 굴지의 방직공업기지로 전변되였으며 오늘은 자기의 뚜렷한 모습을 새겨가고있다.

최근년간에만도 공장에서는 모든것이 부족하지만 자기들의 힘을 믿고 제손으로 지난 시기에 비해 더 많은 천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열풍을 일으키고있다.

공장일군들은 현실적요구에 맞게 새로운 경영전략을 세우고 대중의 앙양된 기세를 더욱 높여주는 한편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원료의 주체화, 설비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있다.

공장의 기술자, 로동자들은 원료도 우리의 것으로, 설비도 우리의 힘으로 개조해야 한다는 의지를 안고 달라붙어 종전에 수입에 의존했던 원료, 자재들의 주체화를 실현하였는가 하면 소면기, 련조기 등의 현대화, 고속화를 실현하였다.

이와 함께 공장에서는 생산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과 함께 염색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도 내밀어 생산을 늘일뿐아니라 제품의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해나가고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공장에서는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으며 직포1직장 직포공 윤옥, 권사직장 권사공 리옥주, 김향, 정방2직장 정방공 김은희, 안해연, 준비1직장 연사공 김경순, 권사공 신정심을 비롯한 많은 기대공들이 지난해 인민경제계획의 4년분, 3년분과제를 앞당겨 완수하는 혁신자들로 자라났다. 이런 혁신자대렬은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이것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포화속에서 전시생산을 보장하던 이 공장 전세대들의 생산열의가 오늘도 맥박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바통은 대를 이어

- 8.28청년돌격대관리국 국장 리금철과 본사기자와의 대담 -

기자: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 창립일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인민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들마다에서 끓는 청춘의 열정과 슬기를 남김없이 떨쳐가는 청년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고있습니다.

국장: 그렇습니다.

청년사업에 몸을 잠그고있는 저도 해마다 이날을 맞으며 인민들이 보내는 축하의 인사를 받을 때면 생각이 깊어집니다.

우리 청년들은 조국의 마음의 기둥, 억척의 지지점으로 되고있습니다. 이것은 청년중시의 위대한 력사와 전통을 떠나 생각할수 없습니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청년문제를 혁명의 성패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청년운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청년들을 혁명의 강력한 전위대오,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년들을 사랑하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조선청년운동이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였습니다.

바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 청년들은 그 어떤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조국과 운명을 함께 하는 청년전위로,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를 갖춘 젊은이들로 훌륭히 자라날수 있었습니다.

오늘 조선청년운동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최전성기를 맞이하고있습니다. 그이께서는 청년동맹의 명칭을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명명하도록 하시고 청년중시가 조선로동당의 일관한 방침, 영원한 전략적로선이라는 것을 천명하시였으며 청년운동을 강화하는것은 곧 당을 강화하고 국가를 강화하는것으로 된다는 철리를 새롭게 밝히시여 청년중시사상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조선로동당의 후비대, 사회의 가장 활력있는 부대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기자: 당과 수령의 그 믿음과 사랑속에 청년들은 시대의 영웅으로, 청년과학자, 청년혁신자들로 자라나 아름다운 생의 자욱을 남기였고 이 땅의 곳곳에 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웠다고 봅니다.

국장: 옳은 말입니다. 건국의 초행길이 마련되던 나날에 위훈을 세운 청년들은 전후복구건설시기에도 빛나는 자욱을 남기였습니다.

제1차 5개년계획수행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해주－하성철길공사에 탄원한 청년들은 몇해가 걸려야 한다던 방대한 공사를 불과 70여일만에 끝내는 집단적혁신운동의 새로운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1960년대를 비롯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년대마다 조국땅 방방곡곡이 애국충정으로 약동하는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소리, 노래소리로 들끓는 속에 강계청년발전소 등 만년대계의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났습니다.

《청년들은 바다로, 탄광으로, 산림으로!》라는 당의 구호를 심장으로 받들고 많은 청년들이 앞을 다투어 탄광과 광산, 림산과 수산, 동력기지건설장들과 제철, 제강공업부문 등 어렵고 힘든 부문에 자원진출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차게 떠밀었습니다.

기자: 이러한 전세대 청년들의 정신은 오늘도 새 세대들에게 계주봉으로 이어지고있지 않습니까.

국장: 그렇습니다. 최근년간에만도 나라에서 북부내륙지대에 대규모수력발전소를 건설할것을 계획하였을 때 청년들은 저저마다 인적드문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당시)건설장에 달려나가 청춘의 푸른 꿈을 묻었습니다. 초기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당시) 대장으로 사업하면서 발전소건설에 참가하였던 저는 청년들의 강의성과 용감성, 힘에 대하여 실지 목격하였습니다.

언제쌓기와 물길굴뚫기도 어려웠지만 제일 잊혀지지 않는것은 1호발전소를 조기조업하기 위하여 대형발전기를 청진에서부터 운반하던 때입니다.

동장군이 활개치는 12월에 온몸이 얼어들었지만 돌격대원들은 자기 한몸보다도 발전기를 먼저 생각하며 길에 난 얼음을 깠고 견인차가 미끄러지면 제 한몸이 그대로 벋침목이 되여 한치한치 전진하였습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돌격대원들의 이런 정신에 의하여 일떠섰습니다.

주체104(2015)년 완공을 앞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용타고 하시며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한 청년들을 높이 평가해주시였습니다.

귀중한 청춘시절에 세상을 들었다놓는 기적을 창조하여 청년영웅이 되려는것은 우리 청년들의 한결같은 열망으로 되고있습니다.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이어받은 이런 훌륭한 청년들이 있는한 조국은 더 강해지며 전진하고 비약할것입니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합니다.

존경받는 지배인

그들은 어떻게 되여 신문, 방송들에 자주 소개되고 축하모임들에 초청받는가, 언제나 첫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있는가.

이 물음의 대답을 우리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찾았다.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은 오늘 조국에서 만리마시대의 본보기공장, 전형단위로 널리 알려져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공장안의 일군들과 기술자, 종업원들은 《공장이 이렇게 변모된데는 지배인의 헌신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습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지배인으로 임명받고 공장을 돌아보는 김명환의 가슴은 아팠다.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과 몇년째 들이닥친 혹심한 자연재해로 하여 고난의 행군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던 조국의 현실을 제사공장에서도 엿볼수 있었던것이다.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그는 이렇게 자신에게 물음을 던졌다. 답을 찾으려 해보았지만 전혀 앞이 보이지 않았다. 허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조건 이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한다는 각오가 더욱 굳어졌다.

그는 첫 사업으로 고장난 설비들을 수리하여 생산을 진행하였고 건설직장을 새로 내온 후 공장탁아소와 유치원건설부터 진행하여 종업원의 대부분인 녀성들이 안정되여 일할수 있게 하였다.

그는 자금이 축적되는데 따라 설비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공장구내를 일신해나갔다. 그리고 양어장을 건설하고 낡은 창고를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회관을 번듯하게 세웠다.

변모되여가는 공장의 모습에서 신심을 얻은 종업원들의 생산열의는 지난 시기보다 몇배로 높아져 직장별경쟁도표의 붉은 줄은 서로 키돋움을 하면서 솟구쳐올랐다.

그러던 10여년전 어느날, 온 공장이 몇해만에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쁨으로 흥성이였지만 그의 마음은 가볍지 못하였다.

당시 공장까지 들어오는 수km에 달하는 증기관들은 직경이 너무 큰데다가 공장이 제일 마지막공급단위인것으로 하여 증기의 도중손실이 적지 않았다.

공장자체의 힘으로 증기공급계통을 근본적으로 개조할 목표를 내세운 지배인은 일군들의

모임에서 말하였다.

《현 조건에서 공장의 생산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자면 무조건 증기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산에서 경제적실리도 보장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여 증기단독관공사가 살림집건설과 함께 립체적으로 벌어지게 되였다.

공사과정에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이 막아섰지만 지배인의 완강한 실천력에 의해 2년반만에 증기단독관공사가 결속되여 공장은 종전보다 매월 수천t의 증기를 절약함으로써 국가에 많은 리익을 주었다.

공장종업원들은 누구나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을 졸업한 우리 지배인은 건설실무가 높고 경제적타산이 매우 밝은 실력가형의 일군이다.》라며 그를 존경하고 따르고있다.

그는 생산실천을 통하여 경제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새로운 이불생산공정을 세울때 기술적문제들을 토론하고 필요한 자금과 로력, 설비와 자재들을 타산하느라 직접 그린 도면들을 묶어놓으면 부피두터운 책이 될것이라고 공장기술자들은 말하였다.

자금과 로력, 자재관리를 비롯하여 공장경영에서 최적화, 최량화를 보장하는것은 그의 사업에서 찾아볼수 있는 훌륭한 기풍이다.

콘베아에 수감장치를 설치하여 누에고치가 용기마다 자동적으로 들어갈수 있게 한것도, 지난 시기보다 한해에 수천t의 누에고치를 더 처리하면서도 적지않은 생산면적을 얻어내게 된것도, 생고치에 의한 명주실생산을 위하여 집합식랭동고를 건설함으로써 명주실의 품질과 실수률을 훨씬 높일수 있게 된것도 그의 해박한 지식과 창조성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그는 누구보다도 바쁜 사람이지만 김책공업종합대학 원격교육학부 학생이 되였고 종업원들도 배움의 길로 떠밀어주었다.

그 나날 공장은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시대의 전형단위로 전국에 알려지게 되였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로력영웅, 중앙사회주의애국공로자인 그는 오늘도 만리마시대창조집단의 선두에 서있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재부를 늘여가는 사람들

조국에는 나라의 재부를 늘이기 위하여 멀고험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속에는 땅속에 묻혀있는 자연부원을 찾아내여 조국과 인민의 귀중한 재부로 마련해가는 강원도탐사관리국 강원도지질조사측량대 대원들도 있다.

최근년간에만도 그들은 도안의 여러 지구에 대한 전망탐사를 진행하여 유망한 광상 및 광체들의 분포위치를 수많이 찾아냈다.

결코 쉽게 마련된 성과가 아니였다.

한승복을 비롯한 측량대원들은 측량설비들을 지고 사람들의 발길이 미치지 않는 높고험한 산발과 깊은 계곡도 가림없이 줄기차게 이어갔다.

측량을 잘하지 못하면 많은 국가자재와 자금, 로력을 랑비할수 있다는 자각을 안고 그들은 해당 지역의 지형상태 및 그 특성들을 정확히 기입한 지형도들을 완성하였다.

그에 기초하여 조사원들은 몇달동안 집을 떠나 도안의 여러 산발들을 넘고넘으며 조사를 심화시켜 많은 광상과 광체매장지들을 확정하였다.

리철호, 김인광, 조윤호, 홍준택조사원들은 지표지질조사, 탐광작업을 진행하여 각이한 광체의 분포특성과 규모, 질적특성을 해명하였으며 지질구성을 확정하고 그에 따르는 매장량이 풍부한 광체매장지를 찾아냈다.

박창복을 비롯한 물리탐사원들도 선진적인 탐사방법을 받아들여 여러 지구에서 품위가 높은 광체들을 확정하였다.

노정식 강원도지질조사측량대 대장은 《지질탐사사업은 나라의 재부를 늘이는 사업으로서 자연과의 투쟁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 탐사원들의 량심과 높은 책임성을 떠나 사업의 성과를 기대할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공업의 척후병이라는 자각, 자연을 정복하고 경제건설을 하자면 지질탐사사업을 앞세워야 하며 그러자면 지질조사측량대원들인 자기들이 맨 앞장에 서야 한다는 자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여있었다.

이런 그들이기에 성과는 비록 눈에 크게 뜨이지 않으며 당장 덕을 볼수 있는것은 더욱 아니였지만 높고낮은 산발들에 자기의 량심을 묻어가고있는것이였다.

그들이 남먼저 헤쳐가는 그 길에서 땅속깊이 묻혀있던 나라의 자원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귀중한 재부로 전환되고 있다.

측량대원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새로운 유용광물을 찾기 위해

비지향단층촬영법을 리용하여 광물의 매장량을 확증한다.

자 양 분

중구역 동안소학교는 많은 자랑을 가지고있다.

지난해에만도 학교에서는 수십여명의 졸업생들이 평양제1중학교를 비롯한 상급학교들에 입학하였다. 그리고 이곳 축구소조원들은 전국적인 소학교 학생들의 축구경기에서 1등을 하였다. 학교에는 노래집 《제일이래요》를 비롯하여 자체로 노래와 글작품집을 만들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기쁨을 드린 학생들도 있다.

자연관찰시간

훌륭한 제자의 뒤에 훌륭한 스승이 있기마련이다.

학교에서는 지적능력이 계발되고 재능의 싹이 움터나는 소학교시절의 특성에 맞게 교육을 참신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교원들은 학교의 모든 공간을 학생들의 학습에 지향되도록 특색있게 꾸리였다. 교사의 복도만 보아도 그 어디에나 빈 공간이 없이 《흥미있는 수학의 세계》, 《조리있게 말하자면》을 비롯하여 수학, 자연, 국어, 음악 등 모든 학과목들에 대한 상식소개판들을 동심에 맞게 게재하였다.

외국어수업시간

이와 함께 3차원영상가상현시기가 설치된 다기능홀을 꾸려놓아 학생들이 자기가 가보고싶은 임의의 장소들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지도록 하였다.

학교에서는 평양교원대학과의 콤퓨터망을 구축하고 모든 교실들을 다기능화된 교실로 꾸린데 맞게 교재연구토론회와 경험발표회, 교수참관 등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 교원들이 새로운 교수방법을 끊임없이 창조해가도록 하고있다.

그가운데는 물음으로 시작된 강의가 물음으로 련속되는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정확하면서도 폭넓은 사유능력을 키워준 김성심교원도 있고 나이와 성격, 취미에 따라 심리를 리용하여 집중력을 높인 리미화교원도 있다.

그런가 하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자유롭게 질문할수 있도록 하고 정해진 문제에 대한 고정된 답이 없이 새로운 의견들을 내놓도록 계발시켜 학생들의 전반적학과실력을 높여준 교원들도 배출되였다.

이곳 교원들에 의해 생동한 표상을 주는 다매체편집물에 의한 교육방법, 여러가지 유희를 통한 수학문제풀이방법 등 새로운 교수방법들이 도입되고 수십종의 새로운 실험기구들과 교편물들이 창안제작되여 학생들의 성적이 나날이 높아지게 되였다.

정보학습실에서

학교에서는 학과경연, 솜씨전람회, 체육경기 등을 자주 진행하여 뛰여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찾아내고 그에 맞는 교수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있다.

교원들의 다양한 교수방법은 학생들을 나라의 역군으로 키우기 위한 밑거름으로 되고있다.

인민교원인 한영옥교장은 《나라에서는 언제나 후대교육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훌륭한 성장을 위해 자양분이 될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글 본사기자 홍정혁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무용소조실에서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

민심은 천심이라고 세상에 민심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

재물을 잃는것은 작은것을 잃는것이고 벗을 잃는것은 큰것을 잃는것이며 민심을 잃는것은 인생의 모든것을 잃는것이라는 말이 있다.

당이 인민을 귀중히 여기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면 혁명이 전진하고 나라가 흥하지만 인민우에 군림하고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면 인민의 배척을 받고 자멸을 면할수 없게 된다.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며 인민과 혼연일체를 이루는것은 인민적당으로서의 조선로동당의 본성이며 기본특징이라고 말할수 있다.

조선로동당은 언제나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그에 맞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을 철칙으로 삼고있다. 그리고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살펴주고있다.

조선로동당이 민심을 확고히 틀어쥐고 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된것은 모든 사업을 철두철미 인민의 리익에 기초하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으로 일관시켜왔기때문이다.

창건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75성상 조선로동당은 인민의 행복을 위한 수많은 로선과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무상치료, 무료교육을 비롯한 인민적인 시책들을 실시하여왔다.

이러한 현실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에 대한 립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주체101(2012)년 세계의 이목은 조선에 집중되였다. 민족의 대국상을 당한 후 조선로동당이 정책방향을 과연 어디에 두겠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때 조선로동당은 피눈물의 언덕에서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숭고한 인민사랑의 정치를 펼치였다. 인민의 심장속에는 조선로동당이 어머니의 모습으로 더욱 깊이 새겨졌으며 세계는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자욱을 새겨가는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풍모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당의 정치가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것으로 일관될 때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정치라고 말할수 있다. 천만고생을 달게 여기며 혁명의 머나먼 길을 헤쳐온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당은 애민헌신의 장정을 끊임없이 이어왔다.

하나의 건축물을 일떠세워도,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인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것이 당의 뜻이고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을 몰라야 한다는것이 당의 신조이다.

려명거리와 릉라인민유원지, 마식령스키장,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같은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인민생활과 직결된 수많은 생산기지들에는 인민을 위하여서는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세계사회주의운동사에는 순탄한 시기에는 인민에 대하여 곧잘 떠들다가도 준엄한 시련이 닥쳐오자 인민의 믿음을 배신한 당들도 적지 않았다. 인민의 운명과 미래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을 지니고 투쟁하는 당의 진면모는 시국이 어려울 때 더욱 드러나게 된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조선혁명은 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험로역경을 헤쳐왔다. 공화국에 대한 적대세력들의 고립압살책동이 극도에 이른 시기에도 조선로동당은 인민생활향상을 중차대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인민적시책들을 더욱 확대강화하여왔다.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 지난해의 전국적인 비상재해방지대책과 태풍피해복구를 비롯하여 당이 취한 모든 조치들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제일생명으로 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의 성격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혁명적당풍이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에는 전당에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신이 꽉 차넘치게 하려는 당의 의지가 담겨져있다.

일군들의 모든 사업이 철두철미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기 위해 전개되고있으며 총화와 평가도 인민을 위하여 좋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진행되고있는것이 조선로동당이다.

인민이 영원하듯이 위대한 인민을 믿고 그에 의거하여 투쟁하는 조선로동당의 위업은 언제나 승승장구할것이다.

본사기자

환희속에 맞이하는 새해

지난해를 긍지높이 보내고 주체109(2020)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조국은 그 어디나 기쁨과 환희로 끓고있다.

새해의 첫 아침 온 나라 가정들에 보내는 령도자의 축복은 인민들 누구나 끝없는 희망과 행복감에 젖어들게 한다.

새해의 아침이면 조국인민들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있다.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과 만수대언덕을 비롯하여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들과 태양상들이다.

한없는 경모의 마음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께 먼저 인사를 드리는것은 대대로 수령복을 누려가는 조국인민들의 숭고한 도덕의리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되고있다.

민족의 고유한 풍습이 설풍경을 더욱 이채롭게 하고있다.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세배를 드리고 친척, 친우들사이에 설인사들이 오가는 속에 가정들에서는 전통적인 설음식을 마련해놓고 맛보며 이웃들간에 새해의 정을 나누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각곳의 극장들에서 이름있는 예

새해를 맞는 교육자가정

새해의 첫날은 어느 가정에나 환희롭고 즐겁다.

지나간 한해에 소중한 추억을 얻는 가정일수록 새해를 맞이하는 감정은 류다른것이다.

더우기 지난해 9월에 진행된 제14차 전국교원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은 교육자들이 맞는 새해의 이 아침은 얼마나 환희로운것인가.

우리는 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지면에 담고싶어 평천구역 미래동 6인민반 2현관 6층 1호에서 사는 로교수부부의 가정을 찾았다.

세대주인 장의준은 지난해 단천발전소건설장에서 우리와 면을 익힌적 있는 로교수이다.

《선생님, 새해를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자선생도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뜻밖의 우리의 방문에 장의준과 그의 안해 김혜원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공동살림방에 들어서니 귀여운 손녀의 춤과 노래소리가 단란한 가정의 설분위기를 돋구고있었다. 부엌에서는 설명절음식준비로 바쁜 며느리의 칼도마소리가 가락맞게 울리였다.

교육자가정의 설분위기를 마주하고보니 우리의 기분도 자못 흥그러워졌다.

나라에서 훌륭히 꾸려준 새집에 이사와서 올해 5번째로 설을 쇤다며 안해 김혜원은 말하였다.

《새집들이를 할 때가 엊그제같은데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응당 해야 할 일을 하였건만 나라에서는 교육자들을 〈금방석〉에 앉혀주었지요. 지난해 우리 부부가 받아안은 사랑은 정말 꿈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에 제14차 전국교원대회에 남편과 함께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녔다고 이야기하였다.

벽면을 채운 여러상의 기념사진들이 우리의 시야에 정히 안겨들었다.

《사진들을 볼 때마다 우리 부부를 교육자로 키워주고 내세워준 조국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고마움이 가슴뜨겁게 젖어듭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는 로교수의 얼굴에는 감회로운 미소가 흘렀다.

지금으로부터 40여년전, 장의준은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마치고 대학의 자원탐측공학부에서, 김혜원은 평양외국어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의 외국어학과에서 교원생활의 첫걸음을 떼였다.

교단에 리상과 포부를 실은 그 마음들이 인연이 되여 이들은 가정을 이루었고 그후 단 한번의 탈선도 없이 후대교육사업에 량심을 바쳐갔다.

고난의 시기 생활상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이들은 서로 이끌어주고 떠밀어주며 교단을 떠나지 않았다.

장의준은 발전소언제의 구조계산과 안정성평가를 자기의 연구과제로 정하고 1998년부터 오늘까지 안변청년발전소며 삼수발전소, 희천발전소, 원산군민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발전소언제건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서 핵심적역할을 하였다.

안해 김혜원도 학생들의 실력제고에 필요한 수많은 교과서와 참고서, 사전들을 집필하였으며 십여명의 박사, 석사들을 키워냈다.

묵묵히 교육사업에 자기의 량심을 묻어가던 나날에 이들은 국가적인 여러 대회에 참가하였고 교수, 박사의 학위학직도 받게 되였다. 그들앞에는 언제나 보답의 걸음보다 사랑과 영광의 자리가 먼저 놓이군 하였다.

추억을 더듬어가던 장의준은 자식들을 둘러보며 《사랑에는 보답이 따라야 하듯이 너희들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새해에도 더 많은 성과들을 안아오기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그의 목소리가 한가정의 아버지의 당부로만 들리지 않았다. 교육사업에 한생을 바쳐가는 로교수부부의 지론으로 가슴에 안겨들었다.

이때 밖에서 초인종소리가 울리였다.

손에손에 꽃다발을 안고 스승을 찾아 제자들이 들어섰다.

《선생님,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에도 건강한 몸으로 교수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축복을 받는 로교수부부의 얼굴에는 교육자의 크나큰 긍지가 한껏 어려있었다.

우리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샤타를 눌렀다.

가정의 행복한 모습과 함께 후대교육사업에 자기의 한생을 다 바쳐갈 로교수부부의 진정과 애국의 마음을 담아.

글 본사기자 홍정혁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술단들의 다채로운 경축공연과 학생소년들의 설맞이공연이 진행되고 **김일성**광장을 비롯한 수도의 공원과 유원지들에서 연띄우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단심줄놀이 등 다양한 민속놀이를 하는 학생소년들의 모습은 설명절의 분위기를 한층 돋군다.

뿐만아니라 평양의 유명한 옥류관과 청류관을 비롯한 각곳의 급양봉사망들에서는 민족의 향취가 풍기는 설명절음식들을 봉사하고있다.

릉라유희장, 개선청년공원유희장을 비롯한 문화휴식터들에서는 인민의 웃음소리가 그칠새 없다.

어디 가나 새해를 경축하는 기쁨과 환희의 분위기이다.

그것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온 나라가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조선민족의 긍지로부터 오는 인민의 행복의 분출이며 그래서 더더욱 희망차고 즐거운 새해이다.

글 본사기자 김성경, 사진 본사기자 김평

금메달수상자들과 스승들

지난해 8월 벌가리아에서 진행된 제21차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은 종합 1등을 하여 조국의 영예를 떨치였다.

그들속에는 남포시태권도선수단 선수들인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이며 인민체육인인 함수경과 한일명선수도 있었다.

14살부터 태권도를 배웠다는 함수경은 제10차 청소년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때부터 여러차례의 국제경기들에서 금메달을 받은 선수이다.

그는 이번 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개인1단틀경기에서 우승하였을뿐아니라 단체틀경기와 단체맞서기경기에서 높은 기술을 발휘함으로써 팀의 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성인 녀자 개인맞서기 72kg급경기에서도 맞다드는 선수들을 모두 이기고 영예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남달리 육체적준비와 힘이 좋을뿐아니라 풍부한 경기경험을 가지고있는 그의 박력있는 경기모습 특히 그가 완강한 방어를 하는 상대팀선수에게 《땅크》처럼 돌입하여 360° 돌아반대돌려차기, 뛰며주먹찌르기를 련속 가하여 결승경기를 승리로 결속하는 모습은 관중들의 찬사를 불러일으켰다.

그와 마찬가지로 선수권대회의 청소년부류경기에 참가한 한일명선수는 국제경기경험이 없는 신진선수이지만 경기를 훌륭히 진행하였다.

남자 개인맞서기 51kg급경기에서 그는 자기의 특기기술인 뛰며주먹찌르기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예선경기는 물론 준결승경기와 결승경기에서 상대팀선수들을 모두 이기였다.

하여 선수권대회에서 남포시태권도선수단의 함수경, 한일명선수들은 도합 6개의 금메달을 쟁취하였다.

남포시태권도선수단에서 국내경기는 물론 국제경기들에서도 금메달수상자들을 련속 배출한것은 자연히 그 스승들의 실력이 간단치 않음을 짐작케 한다. 실지 남포시태권도선수단에는 관록있는 일군들과 감독들이 많다.

경기전술을 세워가는 문종석단장(왼쪽에서 세번째)과 감독들

20년간 남포시 항구구역 항구고급중학교에서 태권도지도교원으로 사업한 경력을 가지고있는 선수단단장인 문종석은 육체기술적으로 준비된 선수들을 수많이 키워내여 금메달만 해도 국내경기에서 800여개, 국제경기에서 23개를 쟁취하도록 한 실력있는 교육자이다.

조선의 정통무도인 태권도경기에서 우리 나라가 항상 우승을 쟁취하여야 하며 다름아닌 그 자리에 자기의 제자들을 한사람이라도 더 내세우기 위해 늘 애써온 그였다.

문종석은 선수단단장으로서 선수들의 적성체질에 맞게 훈련의 과학화를 보장하고 높이 세운 훈련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도록 선수들과 감독들에게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함수경, 한일명선수들에 대한 훈련강도는 지나칠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함수경선수를 맡은 책임감독 허영주와 한일명선수의 감독 박경혁은 그것을 어김없이 집행해나갔다.

선수들이 육체적인 극한점에서 나약해질 때면 감독들은 강한 의지로 이겨내도록 하였으며 그 과정이 조국을 빛내이는 길임을 가슴속에 새겨안게 하였다. 이와 함께 선수들의 특기기술을 적극 살려주고 그것이 경기과정에 적극 발휘되도록 사심없는 지도를 주었다.

자식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부모들처럼 자기들을 위해 진정을 바치는 감독들의 마음은 선수들을 감동시켰으며 선수들로 하여금 훈련에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였다.

그 나날 선수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의 무게만큼 상대팀선수를 통쾌하게 물리치는 순간, 세계의 하늘가에 람홍색공화국기를 휘날리는 기쁨의 순간이 다가온다.》는 자각과 의지가 자리잡게 되였다.

하기에 머나먼 벌가리아의 경기장에서도 그 기발을 보며 스승들과 고향사람들을 생각하였고 용기백배 경기를 진행하여 우승을 안아온 그들이였다.

훌륭한 제자의 뒤에는 훌륭한 스승이 있다는 말과 같이 금메달로 조국을 빛내인 함수경, 한일명선수들의 뒤에는 문종석과 허영주, 박경혁 등과 같은 유능한 감독들이 있었다.

람홍색공화국기를 언제나 가슴속에 안고사는 감독들과 선수들이 있기에 조국은 국제경기들에서 우승을 쟁취하고있는것이며 태권도모국의 영예를 떨쳐가고있는것이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훈련에 열중하고있는 함수경선수(왼쪽)와 한일명선수(오른쪽)

민족문화의 보물고를 늘여가는 도자공예가들

작품창작에 심혈을 기울이는 임경익

지난해 많은 관광객들이 조선의 자랑인 고려청자기를 비롯하여 도자기공예품들을 창작하고있는 만수대창작사 도자기창작단을 찾았다.

그들은 고려청자창작실에서 도자기를 수제성형하고있는 공훈예술가 임경익창작가앞에서 연방 사진기샤타를 누르면서 조선의 도자기들에 엄지손가락을 내흔들었다.

《정말 훌륭하다. 조선의 도자기들을 많이 보아왔지만 저렇게 수제성형하고있는것은 처음본다. 손이 기계같다.》, 《조선의 도자기는 력사도 오래고 예술성에서도 으뜸이다.》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느끼게 하는 이런 찬탄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곳 창작가들과 종업원들의 애국적열정은 더욱 불타오르고있다.

창작단에서는 유구한 력사적과정에 선조들이 창조한 귀중한 문화적재부를 빛내이고 더욱 발전풍부화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였다.

관록있는 로창작가들과 박경술, 김영민, 김광수, 김복실을 비롯한 젊고 쟁쟁한 창작가들은 전통적인 도자기창작에 정열을 바쳐가고있다.

아낌없는 찬탄을 보내는 외국의 벗들

국내뿐아니라 해외에도 명성이 자자한 **김일성**상계관인이며 인민예술가들이였던 우치선, 임사준창작가들의 대를 이어가고있는 공훈예술가 우철룡창작가의 남매와 공훈예술가 임경익창작가의 네 남매도 민족의 슬기와 넋을 도자기공예품마다에 담고있다.

창작가들은 민족적인것을 고수하면서도 형태와 색갈, 문양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승화시키기 위하여 현지습작을 많이 하고 자료연구도 깊이있게 하고있다.

창작단에서는 기량발표회, 작품합평회 등을 자주 조직하여 창작가들이 창작적야심을 가지고 새로운 창작기법을 들고나가도록 하고있다.

이 과정에 새로운 형의 차잔들과 커피고뿌, 사진을 넣은 꽃병도안들이 창작되였다.

송덕수창작가는 과학기술을 앞세워 그 어떤 외부적요인에도 변하지 않는 사진을 넣은 도자기들과 타일, 꽃병, 고뿌들을 더 질좋게 만들수 있게 하였다.

창작단에서는 또한 백자기제작에 필요한 원료들을 새로 연구도입하면서 생산공정들을 새롭게 구축하고 인민들의 사상감정과 기호, 정서에 맞는 각종 도자공예창작사업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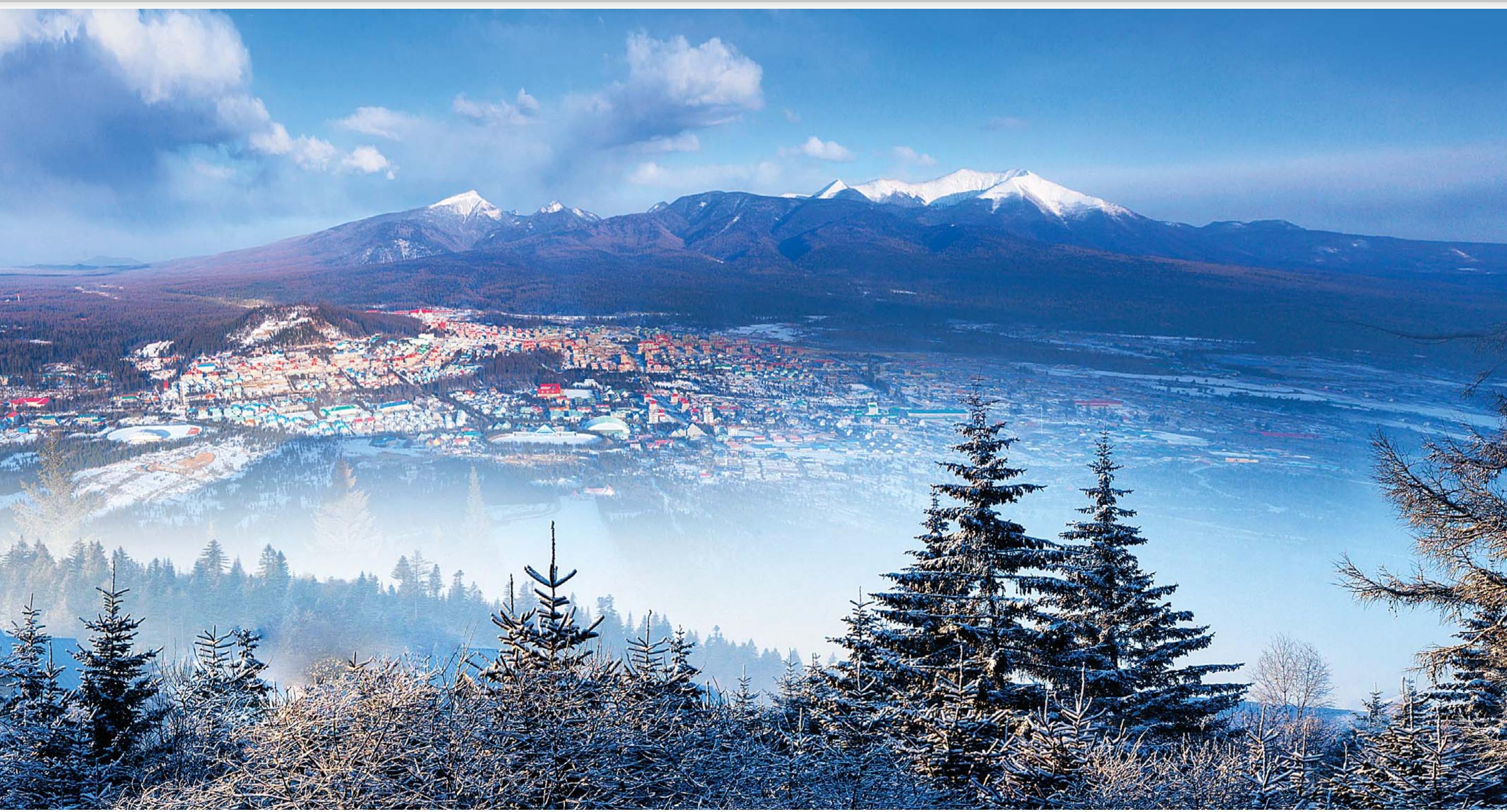
생활에서 리용하게 될 차잔, 커피고뿌들에 조선의 국화, 국조 등이 새겨진 아름다운 도자기공예품들과 행복넘친 가족사진, 독사진들을 넣은 꽃병, 도자기들은 인민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지난 시기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수백여개 단체들의 참가밑에 열리였던 국제도자기박람회들에서 《청룡무늬상감청자꽃병》과 《운학무늬투각청자꽃병》, 《장생도무늬상감청자꽃병》, 《갈대와 기러기상감투각장식청자꽃병》 등이 최고상인 금상과 1등상들을 쟁취하여 그 명성이 널리 알려진 도자기창작단은 오늘 생활적인 도자기공예품들로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김경섭 도자기창작단 단장은 귀중한 문화적재부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 민족문화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도안창작에 열중하는 창작가들

도자기 사진제작

창작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백두산아래 펼쳐진 삼지연시의 아침

사진 김용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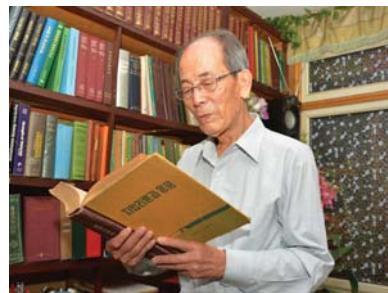
로과학자가 걸어온 길

《사람은 누구나 민족을 위하여 량심껏, 재능껏 무엇인가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조국의 품에 안겨 남다른 행운을 받아안은 저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석탄공업성 석탄연구원 채굴공학연구소 연구사인 리룡암(86살)은 우리와 만나 이렇게 서두를 떼였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이 한생에 일할수 있는 기간이 기껏해서 50년안팎이라고, 나라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보답을 다 못하고있는것이 안타깝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그런 마음속진정을 안고있는 그였기에 년로한 몸이였지만 젊은 연구사들 못지 않게 새로운 도서집필과 후비육성사업에 열정을 쏟아붓고있었다.

이미 연구발표한 《지압연구론문집》과 지난 기간의 채굴공학전반에 대한 성과자료들을 종합하여 나라의 재보로 되는 도서 《석탄채굴경험집》을 내놓은데 이어 《석탄채굴편람》집필도 끝낸 그였다. 뿐만아니라 그는 연구소의 적지 않은 제자들을 석사, 박사들로 키워냈다.

사실 고령인 그가 실적을 내기란 결코 헐한것이 아니여서 연구소의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돌보며 일하라고 권고하군 하였다.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쉴새가 없지. 난 남보다 두곱세곱 달려야 하거던. …》 하며 일에 파묻히군 하였다.

리룡암

그러던 그도 힘이 진하여 맥을 놓은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흘러간 잊을수 없는 나날들을 회억하였다.

경상북도 영천군(당시)의 빈농의 가정에서 태여나 배움의 꿈을 안고 일본에 건너가 고학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던 일들이며 안해와 함께 첫 귀국선에 올랐던 감격스러운 나날들…

그가운데서도 갓 귀국한 자기들의 집을 찾아주시고 부부가 다 공부하는 대학생가정, 대학생부부라고 기뻐하시며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일군이 되라고 하시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자애로운 모습이 가슴뜨겁게 안겨왔다.

그후 그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지망대로 국가과학원 채굴공학연구소(당시) 연구사로 일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연구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연구방향과 종자도 틔워주시고 필요한 실험설비일식을 마련해주시였으며 연구력량도 꾸려주시였다.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고 그는 마침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무잔주채탄법을 연구도입하여 석탄채취률을 훨씬 높이였으며 탄광의 기본갱도영구화방법도 새롭게 개선하여 갱목을 절약하면서도 갱도유지를 안전하게 할수 있는 성과도 내놓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심층지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하여 광산과 탄광들에서 지심깊은 광석과 석탄을 안전하게 채굴할수 있게 하였다.

그 나날 애로와 난관도 많았으나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가르치심을 늘 되새기며 나라의 채굴공학발전에 온갖 심혈을 다 바치였다.

그 과정에 그는 **김일성**상계관인, 로력영웅, 원사, 교수, 박사의 값높은 칭호와 명예를 받아안았다. 그리고 많은 대회들에 참가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도 지니였다.

어제날 산골마을의 올망졸망한 뙈기밭에서 농사를 지으며 《룡바우》라고 불리웠던 소년, 차거운 일본땅에서 학비를 댈수 없어 몇번이나 대학에서 쫓겨날번 했던 불우한 청년인 그가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겨 인간으로서, 과학자로서 성공하였고 최상의 영광을 다 지니게 된것이였다.

하기에 그는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섰어도 여생의 하루하루를 도서집필과 후비육성사업에 심신을 다 바쳐가고있는것이다.

얼마전 그는 한생의 재부라고 할수 있는 귀중한 도서들을 연구소에 기증하면서 《생이 지는 순간까지 보답의 주로를 달리겠소.》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글 본사기자 강경수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증손자의 재롱에 웃음꽃 핀다.

력사인물

계몽기가요 《눈물젖은 두만강》과 작곡가 리시우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중의 하나인 계몽기가요에는 가요 《눈물젖은 두만강》도 있다.

겨레의 처절한 수난의 력사가 그대로 비낀 이 노래는 해방전 나라를 잃은 민족의 설음과 반일애국감정이 짙게 깔려있는것으로 하여 오늘도 사람들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있다.

노래는 부르기 쉽고 서정적이면서도 생활적이며 계몽기시대적특성을 그대로 체현하고있다.

가사에서는 《님》이라는 표현을 쓰고있는데 여기서 표현되는 《님》은 단순한 애정관계의 님이 아니다.

안타깝게 부르며 찾는 《님》은 두만강 푸른물에 리별의 눈물을 뿌리며 떠나간 나라잃은 겨레의 모습이였고 빼앗긴 조국의 몸부림이였다.

이렇게 가사에서는 《님》이라는 은유적수법으로 조국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조국의 해방을 바라는 애국애족의 사상감정을 표현했다.

가요 《눈물젖은 두만강》은 리시우가 작곡한 노래이다.

경상남도 부산에서 출생한 리시우는 방랑극단 《예원좌》에서 활동하였다.

그의 유년시절경력은 구체적으로 전해지는것이 없다. 그는 1920년대말－1930년대초 함경북도 청진에 와서 산적이 있었는데 이무렵 주로 순회공연을 하는 방랑극단에 소속되여 기타연주를 하면서 작곡을 하게 되였다.

그 시기에 그는 《봄잃은 락동강》, 《눈물의 국경》, 《타향술집》 등 여러 노래를 작곡하였지만 그가 유명한 작곡가로 알려진것은 《눈물젖은 두만강》을 작곡하면서부터였다.

1930년대 중엽 중국 룡정에서부터 순회공연을 하던 《예원좌》극단이 두만강대안의 자그마한 도시인 도문에 머물렀을 때 리시우는 려관에서 울려나오는 녀인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였다.

알고보니 독립운동에 나선 남편을 찾아 온갖 고초를 겪으며 두만강을 건너온 녀인인데 남편이 일제에게 무참히 희생되였다는 청천벽력의 소식에 너무 억이 막혀 통곡하고있는것이였다.

가는 곳마다 나라잃은 겨레의 슬픔을 사무치게 느낀 리시우는 이렇게 절규했다.

《살길을 찾아 해방전에 몸바칠 각오안고 얼마나 많은 이 나라의 아들딸들이 두만강을 건너갔던가. 기약없이 헤여지는 설음에 흘리는 피눈물이 너의 물결을 더해주어 두만강아 너의 흐름 마를줄 모르는것이냐.》

이렇게 되여 리시우는 《눈물젖은 두만강》을 작곡하게 되였으며 문학청년 한명천이 지은 가사에 자기의 곡을 달았다.

조국을 빼앗기면 산천도 피눈물에 젖는다는 진리를 깨우쳐주는 계몽기가요 《눈물젖은 두만강》을 오늘도 우리 겨레는 즐겨부르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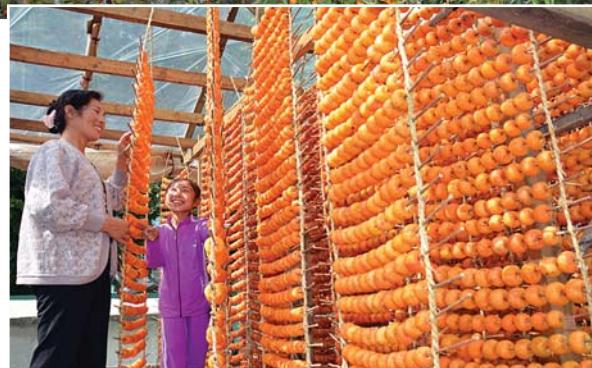
* * *

고향소식

감나무고장의 변모

마을과 집집마다에 감풍년

강원도 안변군은 감고장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듯싶다.

거리에도 감나무, 집집에도 감나무, 산에도 감나무… 말그대로 온통 감천지이다.

우리와 만난 군의 일군인 리상호는 그 어느 가정, 농장, 공장 할것없이 모두가 감나무를 심고 가꾸고있다고 하면서 《감, 감 해도 우리 안변의 감만 한게 어디 있겠습니까. 씨가 적으니 먹기 좋지, 달기는 꿀맛 찜쪄먹지.》라고 자랑을 듬뿍 담고 말하였다.

집집마다 보통 10그루이상의 감나무를 가꾸어 가을이면 1~3t의 감을 수확하고 농장과 공장들에서도 감을 거두어들여 가정수입, 공장과 농장수입이 늘어난다니 자랑할만도 하였다.

한창 수확계절이여선지 곶감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곳곳에서 볼수 있다.

안변읍 72인민반에서 살고있는 배성희로인의 가정도 례외가 아니였다. 세간을 낸 맏딸과 둘째딸, 사위, 손녀까지 동원되여 껍질을 벗긴 감을 싸리꼬챙이에 꿰고있었다.

로인은 현재까지 1t 500kg의 감을 땄는데 아직 이만큼은 더 나올것 같다며 《감이 얼마나 잘 되였는지 우리뿐아니라 적지 않은 집들이 곶감을 많이 해놓고있다오.》라고 말하였다.

아닌게아니라 읍거리의 살림집창문과 베란다들마다에는 싸리꼬챙이에 꿴 곶감들이 줄줄이 매달려있었다. 안변땅에서만 볼수 있는 풍치였다.

흐뭇한 감풍경은 안변종이공장에서도 볼수 있었다.

공장의 일군은 종업원들치고 감나무에 대한 애착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감나무를 가꾸는것이 이제는 하나의 생활로 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그의 말을 증명하듯 가지마다에 감알들이 주렁주렁 달린 감나무들은 보기에도 흐뭇하였다.

공장일군은 봄과 여름에는 구내가 감나무잎과 감꽃속에 잠겨 볼만 하지만 가을이면 그 풍치가 절정에 닿아 오가던 길손들도 걸음을 멈추고는 붉은 감알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는다고 하였다.

공장에서는 해마다 여러t의 감을 수확하여 종업원들에게 공급하고있었다. 감을 수확한 다음에 종업원들은 그루마다 거름도 듬뿍 주며 감나무비배관리에 품을 들이였다. 감나무들이 키높이 자랄수록, 열매가 주렁질수록 종업원들의 생산열의는 더욱 높아졌고 날마다 전해지는 혁신의 새 소식과 더불어 공장의 감풍경은 이채롭게 펼쳐지군 하였다.

읍의 여러곳을 돌아보느라니 이곳 사람들의 생활 역시 잘 익은 감처럼 달디단듯싶었다.

최근년간 이 고장사람들은 많은 집들을 새로 짓고 집들이를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은덕원, 미래원, 문화회관을 비롯하여 군을 보다 더 훌륭히 꾸려놓으니 사람들모두가 여간만 좋아하지 않고있었다.

그뿐이 아니였다.

토지정리로 올망졸망하던 뙈기논들이 규격화된 포전으로 정리되고 선진영농방법을 받아들여 논벼생산을 높이니 안변군은 강원도의 주요벼생산기지로 전변되였다.

안변청년2호발전소

더우기 강원땅에 안변청년2호발전소를 비롯한 발전소들이 여러곳에 일떠서 전기덕을 톡톡히 보게 되니 살림살이하기가 여간만 재미나지 않다며 누구나 밝은 웃음을 지었다.

바다가 가까와 어물이 흔한 고장, 크고 단 사과, 꿀맛같은 감이 주렁지는 고장, 흰쌀밥맛이 좋은 고장…

그런 고장, 그런 고향땅을 등지고 일제의 강탈에 못 이겨 타향만리로 떠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비록 수십년세월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 살고있어도 어제날 고향땅의 애틋한 추억만은 소중히 간직하고 있으리라.

만약 그들이 오늘의 고향땅을 찾는다면…

우리는 감나무고장의 풍치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며 배로인이 한 말을 되새기였다.

《앞으로 우리 고장 감은 더욱 달아질거웨다.》

글 본사기자 변진혁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안변군 모풍리에 꾸려진 민물련어양어장

상 식

조선사람들의 친절한 손님접대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극진히 대해주는것을 미덕으로 여겨왔다. 아무리 생활형편이 어려워도 집에 찾아온 손님을 친절하게 대하면서 성의껏 대접하는것은 우리 인민이 간직한 후더운 인정미, 아름다운 마음씨였다.

네데를란드사람인 하멜이 쓴 《하멜표류기》(17세기 출판)에는 려행자로서 밤에 가닿는 곳이 비록 대인(량반)의 집이 아닐지라도 손님에게 충분한 저녁식사를 준다, 거기서 묵고나온 뒤에는 또 다른 집에 가서 묵을수 있고 기타 여러곳에서 그와 같이 할수 있다고 우리 나라에 대해 씌여져있다.

한편 19세기 후반기 우리 나라의 여러 지방을 돌아본 로씨야사람은 《조선지》라는 책에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많이 려행하였다. …조선사람들은 려행자들이 머무는 첫날부터 마지막날까지 친근하게 접대해줌으로써 려행자들을 반하게 한다. 세상에서 이렇게도 성격상 사람의 마음을 끄는 특성을 가진 인민들을 발견하기는 힘들것이다.》

지난 시기 괴춤에 동전 한잎 없는 사람도 조선의 팔도강산을 돌아다니며 려행할수 있은것은 자기 집이나 마을에 찾아온 손님에게는 돈을 내지 않아도 밥을 먹여주고 잠을 재워주는 우리 인민의 조상전래의 미풍량속과 관련되여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심양시지부 주영자고모 앞

새해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싶은 고모,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년로한 몸이지만 동포애국사업에 헌신하고계실 고모의 모습을 그려보며 조카 주성욱이 멀리 조국에서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송숙, 성숙누님과 조카 현송이도 다 잘 있습니까.

이번에 잡지 《금수강산》을 통해 고모에게 소식을 전하게 되여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친척방문으로 신의주에 왔던 고모와의 상봉이 엊그제일 같은데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때여서인지 고모생각이 더욱 깊어집니다. 그러느라면 몸은 비록 이국땅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조국에 두고 살아오신 고모의 한생이 돌이켜집니다.

해마다 조국땅을 밟았고 어떻게 하나 조국에 하나라도 보탬을 줄 애국의 마음으로 살아온 고모가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철없던 시절에는 자주 조국방문을 오는 고모를 두고 단순히 혈육의 정, 모국에 대한 그리운 감정때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허나 그 걸음이 애국과 잇닿은 큰 걸음임을 저는 오늘에야 비로소 알게 되는것 같습니다.

지금도 1986년에 고모가 수십대의 재봉기를 마련하여 조국에 기증하던 일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30여년간을 크나작으나 조국의 부강번영에 보탬이 되는 일을 스스로 찾아해온 고모입니다.

언제 한번 조국과 자신을 떼여본적이 없는 고모였기에 나이가 많고 불편한 몸인데도 여전히 조국방문의 길을 이어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고모를 커다란 자랑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한 자랑을 안고 조국에 있는 저와 저의 가족도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애국의 마음을 다 바쳐가고있습니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 지령원으로 일하고있는 저는 나라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할 일념을 안고 힘껏 일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소에서는 나라의 중요대상들에 보내줄 설비들과 각종 부속품, 협동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습니다. 비록 제가 하는 사업이 직접 기계설비를 다루는것은 아니지만 생산지령을 어떻게 주는가에 따라 해당 작업반과 직장의 생산성과가 좌우지되는 책임적인 사업이랍니다.

맏며느리라고, 집살림살이를 잘한다고 고모가 칭찬하던 집사람은 인민반사업을 하면서 대상설비생산으로 드바쁜 로동자들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여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있습니다.

고모가 신의주에 왔을 때 노래 《내 심장의 목소리》를 불렀던 아들 유현이도 이젠 무척 컸습니다.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춘다고 고모가 자기의 무릎에 앉혀주었던 유현이는 초급중학교 학생이 되였습니다.

고모, 하고싶은 말은 많지만 이 자그마한 면에 다 담을수 없으니 이만 쓰려고 합니다.

우리는 조국에서, 고모는 해외에서 조국의 륭성번영과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애국의 마음을 합쳐갑시다.

또다시 고모와의 뜻깊은 상봉을 기다리며 새해에도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평안북도 신의주시 락원2동 13인민반
주성욱조카 올림

마음과 힘을 합쳐갑시다

동포여러분,

주체108(2019)년이 지나가고 어느덧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를 맞는 해외동포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충격과 기쁨, 환희가 엇갈린 속에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보고 또 올해에 하여야 할 사업들을 구상해보느라니 참으로 감회가 깊어집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중국의 습근평주석과 여러차례 상봉하시여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더욱 튼튼히 다지시였고 로씨야의 국가수반과도 만나시여 우의를 두터이 하시였습니다.

날마다 달마다 세상을 깜짝 놀래우는 새라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질 때면 너무도 기뻐 울고웃던 동포여러분의 모습이 방불히 안겨옵니다.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과 국장들인 한길수, 김연주, 김영희동포들, 김칠성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 제1부위원장은 조국에서 일어나고있는 사변적인 소식들을 들을 때면 마음도 배심도 든든해진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진정을 토로하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언제나 인민을 위해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을 신문과 텔레비죤으로 뵈올 때면 절로 눈시울이 뜨거워만진다고 하던 여러분의 감동에 젖은 목소리도 다 들려옵니다.

그리고 몸은 비록 해외에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조국과 함께 있다며 조국의 사회주의강국건설과 통일을 위해 아낌없는 열정과 지성을 바쳐오던 동포들의 모습도 다 떠오릅니다.

진정 여러분은 언제나 조국과 마음도 숨결도 하나가 되여 보폭을 내짚군 하였습니다.

정말이지 지난해는 동포여러분에게 있어서 래일에 대한 희망과 꿈을 안겨주고 잊지 못할 추억을 안겨준 한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참된 애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동포여러분이 열렬한 조국애를 지니고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발전과 통일을 위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동포여러분들속에서는 날이 갈수록 조국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열의가 비상히 높아지고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열의를 헤아려 8년전에 나온 해외동포경제협력사무소는 동포들이 경제실무사업을 활력있게 해나가도록 온갖 편의와 리익을 보장하고있습니다.

사무소에서는 해외동포들과 국내무역기관들과의 경제거래에 대한 련계, 협의, 협력사업을 보장해줌으로써 동포들이 조국과의 경제거래를 보다 원활하고도 실리있게 진행하도록 좋은 투자환경을 마련해주고 업무활동과정에 일부 나타나고있는 부족점들을 사전에 막아 동포경제인들의 업무활동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고있습니다.

동포여러분이 사는 곳과 지역, 나이와 성별은 서로 달라도 우리는 동포여러분의 모습에서 불같은 지향을 읽을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국을 있는 힘과 지식을 다 발동하여 받들겠다는 뜨거운 심정입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 우리 조국이 더 강해지고있는것입니다.

동포여러분, 올해는 조선로동당창건 75돐, 조국해방 75돐, 6.15북남공동선언발표 20돐이 되는 해입니다.

경축의 날과 달들이 수놓아져 기쁨에 기쁨을 덧쌓게 될 새해에도 동포들이 마음과 힘을 합쳐 통일애국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 바랍니다.

동포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축원합니다.

해외동포사업국 처장 김유성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드리였다.

고국방문

감탄속에 하루, 또 하루

- 중국 연변대학교원학생조국전습대표단 -

평양지하철도참관을 기념하여 찰칵

《정말 훌륭하다.》

《5월1일경기장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슴이 울렁거렸는데 공연이 시작되니 심장이 막 부풀어오르는것만 같았다. 멋있다.》

《참다운 예술을 보았다.》

이것은 지난해에 진행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인민의 나라》를 보며 중국 연변대학교원학생조국전습대표단 성원들이 한결같이 터친 말이다.

그들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에 넋을 빼앗겼으며 황홀경을 펼친 참가자들에게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냈다.

대표단단장인 리홍관동포만 내놓고 모두가 처음으로 고국을 방문해서 그런지 그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연해연방 박수갈채를 보냈다.

만수대창작사 미술작품전시관을 참관할 때에도 김순화, 박해연동포를 비롯한 많은 동포들이 조선화앞에서 발걸음을 쉬이 떼지 못했으며 안룡철, 강진영동포들은 평양지하철도에 들어서서는 고국인민들의 밝은 모습을 사진기에 담기도 하였다.

만경봉을 돌아보며

만수대창작사를 참관하였다.

최미선동포를 비롯한 많은 동포들은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할 때 찌그러진 독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위대한 **김일성**주석이시야말로 인민적인 수령이시라고 절절히 이야기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에서 명망있는 교원들의 음악강의를 받았으며 가야금, 해금, 장새납 등 민족악기들에 대한 전공훈련을 진행하였다.

이 나날 동포들은 더 높은 연주기량을 터득하기 위해 열심히 훈련하였다.

중국 연변대학 예술학원 민족성악교수인 리홍관동포는 《우리 대표단성원들은 이번에 많은것을 배우고갑니다. 고국은 음악이 발전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중국에 가서 기량훈련을 맹렬히 하여 고국에서 진행되는 다음해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에 꼭 서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을 참관하고 강의와 전습을 받았다.

인상기

평생 잊을수 없다

울창한 수림으로 뒤덮인 산발들과 좁고 깊은 계곡들, 기묘한 봉우리들과 기암들, 장쾌한 폭포와 담소 등으로 절경을 이룬 칠보산은 정말 아름답다.

조국에 오기 전에 명산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직접 딸과 함께 와보니 그 감정이 얼마나 류별난지 모르겠다.

내 딸은 공기도 맑고 물도 맑으니 너무 좋아 칠보산을 떠나고싶지 않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절경을 마음껏 관망할수 있는 개심대, 승선대 등에서 사진을 찍는다, 동영상으로 촬영한다 하면서 어찌할바를 몰라하였다.

경치뿐만이 아니다.

명산의 물맛도 좋고 칠보산의 특산인 송이버섯 또한 별맛이였다.

칠보산에서의 밤은 밤대로 아름다워 하늘에 떠있는 별도 류달리 빛났다.

경치아름다운 명승지에서 낮과 밤을 보낼수록 생각이 많아졌다.

그 옛날 돈 많은자들의 유흥지로 되였던 곳을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꾸려주시기 위해 심혈을 바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로고가 눈에 어려와서였다.

그이께서는 여러차례 칠보산을 찾으시여 이곳을 인민의 유원지로 꾸리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방도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고 한다. 정말 탐승의 갈피마다에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에 대한 헌신의 체취가 어리여있다.

하여 칠보산은 오늘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세계적인 명산으로 그 이름 빛나고있는것이다.

칠보산에서 보낸 나날들을 나뿐만아니라 우리 딸도 평생 잊을수 없다.

나는 이런 훌륭한 조국을 둔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나뿐만아니라 후대들도 조국을 위해 힘껏 일해나가도록 이끌어줄 결심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국장 김영희

[주체108(2019)년]

폐부로 느꼈다

이번에 나는 경치아름다운 마전에 갔댔다.

가없이 푸른 하늘과 손수건을 담그면 금시 푸른 물이 들것만 같은 조선동해의 물은 얼마나 맑고 푸른지 기분이 다 상쾌했다.

너무 격동된 나머지 나는 파도가 치는 바다에 몸을 푹 잠그었다.

그런데 얼마 안있어 고질적인 심장병이 발작해서 나는 정신을 잃고말았다.

늘 심장병이 발작해서 웃주머니에 뇌심사향을 넣고다녔지만 수영복차림이였던것으로 하여 써보지도 못했다.

한초한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다. 후에 안 일이지만 우리와 함께 동행했던 조국의 의사선생님들까지 내가 바다물에 가라앉는것을 보고 파도치는 바다속에 서슴없이 뛰여들었다는것이다.

구급치료를 받고 내가 정신을 차리자 동료들은 천만다행이라고 하면서 두번다시 살아났으니 천행이라고 하였다.

나는 조국의 의사선생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밖에 드리지 못하였다.

그러자 의사선생님들은 자기들은 본분을 다했을뿐이라고 하면서 몸조리를 잘해서 조국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자리를 슬며시 떴다.

정말 고마왔다.

조국의 전반적무상치료제와 사람들의 따뜻한 인정미에 대하여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이번처럼 직접 당해보기는 처음이다.

그러고보면 나는 조국에서 생을 다시 받아안은것이나 같다.

나는 두번다시 생명을 안겨준 조국인민들을 언제나 잊지 않을것이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중남지구협회 회장 백경헌

[주체108(2019)년]

우리 민족의 반침략투쟁사 (9)

해외침략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고 전쟁준비를 다그치던 일본침략자들은 1592년 4월 조선에 대한 침공을 개시하였다.

이로써 조국에서는 임진조국전쟁(1592년－1598년)이 일어났다.

당시 일본침략자들이 동원한 무력은 15만 8 700명의 륙군과 수만명의 수군에 후속부대까지 합하면 총 20여만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조선침략은 자기의 조국강토를 열렬히 사랑하는 조선인민을 얕잡아보고 덤벼든 적들의 한갖 망상에 지나지 않았다.

이 시기 나라의 안팎의 형편은 매우 어려웠으나 조선인민은 일본침략자들을 반대하는 7년간의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 왜적을 쳐부시고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과 영예를 수호하였다.

임진조국전쟁시기 나라의 방방곡곡에서는 남녀로소를 가리지 않고 인민들이 일본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정의의 투쟁을 벌렸다.

그러한 투쟁들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은 임진3대첩이라고 불리우는 바다에서의 한산대첩, 륙지에서의 행주대첩과 진주대첩이다.

한산대첩은 1592년 7월에 있었다.

바다에서는 우리 수군이 리순신장군의 지휘밑에 이미 2차례의 해전에서 크게 승리함으로써 조선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한 상태였으며 적들의 수륙병진기도는 파탄될 위험에 처하였다.

적들은 저들이 초기에 세웠던 수륙병진기도를 어떻게 하나 실현시켜보려고 1592년 6월 3개의 대함대를 새로 편성하여 조선함대를 공격하여왔다.

적함대가 기동을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은 리순신장군은 적들의 대규모침입에 대처하여 련합함대를 편성하였다. 드디여 7월 6일 조선수군이 출전하였다.

리순신장군은 적함대를 한산도앞바다에 끌어내여 쳐부실것을 결심하고 조선함대의 주력을 한산도 북쪽기슭에 은폐시켰다. 그리고 5~6척의 판옥선을 선봉대로 삼아 적을 유인하게 하였다. 적들은 유인대를 따라잡으려고 속도를 높이였다. 거의 모든 적함선들이 한산도앞바다에 들어서는 순간을 기다리던 리순신장군은 전 함대에 총공격명령을 내리였다. 이 격전에서 조선함대는 적함 73척가운데서 도망친 14척을 제외하고 포위진에 든 적선 59척을 완전히 격침하고 수천명의 적을 살상하였다.

1593년 1월에 있은 행주대첩(행주산성전투)도 우리 인민의 불굴의 의지를 과시한 전투였다.

조선군대와 인민들의 반침략투쟁에 의하여 여러곳에서 무질서하게 쫓기여 한성에 모여든 일본침략자들은 한성을 계속 견지하려는 목적밑에 2월 12일 3만명의 침략군을 동원하여 행주산성을 공격하여왔다. 이때 산성에는 2 300명의 군대와 주변인민들밖에 없었다. 적아간의 력량상차이는 너무도 컸지만 성안의 군민들은 권률의 지휘밑에 용감히 싸웠으며 성밖에 나가 화차를 끌면서 반돌격으로 적을 무찌르기도 하였다. 성안의 부녀자들도 싸움에 떨쳐나서 치마폭에 돌을 담아 날라다줌으로써 싸우는 군사들을 크게 고무하였다. 저녁때까지 계속된 가렬한 싸움에서 성안의 군민들은 끝내 적의 공격을 물리치고 크게 승리하였다.

진주대첩(진주성전투)이 벌어진 진주는 군사전략적의의가 큰 곳이였다.

적들은 진주를 강점함으로써 조선수군의 본거지인 전라도로 진격하여 어렵게 된 군량문제를 풀고 나아가서 수륙병진기도를 실현하려고 타산하였다. 그리하여 적들은 1592년 10월 3만명의 륙군을 동원하여 불과 3 700명의 관군과 인민들이 지키고있는 진주성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진주성안의 애국적군사들과 인민들은 용감히 싸워 성을 고수하였다.

진주성전투의 승리는 해전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고 전라도를 점령함으로써 전쟁을 다시 확대해보려던 적들의 기도를 파탄시키고 침략자들을 궁지에 몰아넣게 한데 그 의의가 있었다.

이밖에도 전국각지에서 일어난 의병들의 애국적투쟁은 적들을 전률케 하였으며 임진조국전쟁의 승리를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참으로 임진조국전쟁은 우리나라 중세 전쟁사에 뚜렷한 한페지를 남긴 반침략전쟁이였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리일심

옥류관의 자라료리

동포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아름다운 대동강기슭에 푸른 기와를 머리에 얹고 웅장하게 서있는 옥류관에서는 민족의 자랑, 평양의 자랑으로 손꼽히는 평양랭면을 봉사하고있습니다.

평양랭면으로 유명한 옥류관에 료리전문식당까지 있어 갖가지 료리들을 맛볼수 있습니다.

료리전문식당에서는 철갑상어, 련어, 자라료리도 봉사하고있는데 손님들속에서 인기를 끌고있습니다.

특히 자라료리에 대한 손님들의 관심이 제일 높습니다.

통자라찜

자라료리는 그 약효가 뛰여나 오랜 옛날부터 왕실가족들만 맛보았다고 합니다.

그럼 잠시 자라의 생물학적특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라는 갑의 길이가 20㎝정도이고 너비는 15㎝정도인데 목을 길게 빼수도 있고 목을 움츠러뜨려 갑속에 넣을수도 있습니다. 몸뚱이는 납작하고 갑으로 둘러싸여있습니다. 몸걸면은 연한 피부로 덮여있는데 비늘판이 없으며 색은 누런 밤색을 띱니다. 목은 길고 네다리와 꼬리는 짧습니다. 뒤발에 발가락사이막이 있어 물에서 잘 헤염치며 앞뒤발에 날카로운 발톱이 3개씩 나있어 땅우에서도 잘 기여다닙니다.

조국에서는 구락리자라와 승호리자라를 천연기념물로 정하고 보호증식시키고있습니다.

옥류관에서는 평양자라공장에서 생산된 신선한 자라들을 리용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자라료리에 대해 보기로 합시다.

저는 자라료리를 전문으로 하는 료리사 김승진(47살)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로부터 자라료리는 맛이 좋을뿐만아니라 갑, 뼈, 살, 피 등 그 어느 하나도 버릴것이 없이 귀한 약재로 쓰이고있다고 하였습니다.

문득 제가 어릴적에 있었던 하나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제가 10살쯤 났을 때 어머니는 자라피가 어린이 보약제로 으뜸이라는 말을 듣고는 가는 감기, 오는 감기 다 만나 골골 앓던 저를 위해 자라 한마리를 구해다가 거꾸로 매달고 몇시간이 지난 후 자라목을 베여 피를 받았습니다.

기껏해야 자그마한 술잔 하나에 차지도 못한 그 피를 뜨끈할 때 먹어야 한다며 저를 무던히도 얼리던 어머니모습이 눈앞에 어려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자식을 위해 기울이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 있을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그날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료리사의 말을 더욱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포여러분께 한시바삐 전하고싶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계속되였습니다.

《우리 식당에서는 자라피술, 자라탕, 자라붉은졸임, 자라회, 자라찜, 자라죽, 자라차를 봉사하고있습니다.

자라피는 인차 굳어지기때문에 국주인 평양소주에 생신한 피를 풀었습니다.

자라료리 한상에는 500g짜리 자라 한마리를 씁니다.

자라의 갑을 떼고 십자로 네등분하면 한토막에 다리가 하나씩 붙어있는데 그것으로 료리 한가지씩 만듭니다.

간, 심장, 알로는 자라회를 만듭니다.

자라붉은졸임에는 자라고기와 잘 어울리는 버섯, 참대순, 돼지고기햄 등을 부재료로 씁니다.

자라찜은 자라고기를 탕쳐서 진채와 생강, 양파 등에 재웠다가 비린 맛을 없애고 그것을 쩌냅니다.

자라탕은 돼지고기와 닭고기로 재움물을 만들고 탕물은 자라목대, 발목과 생강토막, 평양주 등을 넣고 끓이다가 채로 받아 씁니다.

자라죽은 탕물에 흰쌀을 넣고 죽을 쑤어서는 기름에 지진 찰떡 한토막을 넣고 기름에 튀긴 김을 잘게 썰어 장식하여 냅니다.

식사가 끝난 후이면 자라등껍데기를 로에 구워 가루낸것을 대추와 함께 끓여낸 자라차도 맛볼수 있습니다.

우리 식당의 자라료리를 맛본 사람들은 훌륭한 식당에서 맛있는 료리를 맛보았다고 자기의 심정을 표시하군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조국을 방문하시는 기회에 으뜸가는 영양식품의 하나인 옥류관의 자라료리를 맛보실것을 권고합니다.

본사기자 연옥

조국의 각 도 특산물들 (13)

평안북도의 특산－녕변비단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조국의 비단은 그 질이 우수하여 일찍부터 세상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져있다.

특히 고려시기에 와서는 그 질이 더욱 높은 수준에 이른것으로 하여 《고려비단》이라는 이름으로 주변나라는 물론 멀리 아랍나라들에까지 수출되였다.

녕변은 이러한 비단생산에서 이름있는 지방의 하나이다.

녕변일대에서는 오래전부터 뽕나무를 심고 누에를 쳐서 비단을 생산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1481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 《림원십륙지》(1825년)의 기록에 의하면 녕변은 당시 조국의 주요 비단생산의 기초공정인 뽕나무재배와 누에치기에서 좋은 전통을 창조하고 계승해나갔다.

이 지역에서는 개체추리기방법으로 재래종뽕나무들가운데서 보다 추위견딜성이 강하고 품질이 좋은 《추우》종을 육종해내였는데 이 뽕나무는 겨울의 모진 추위에도 잘 견디고 심은 후 수확도 매우 좋았다.

당시 이 고장에서 생산되던 비단들로는 대표적으로 합사주, 반주, 항라, 칠색단 등을 들수 있다. 그중에서도 실을 꼬는 방법으로 만든 합사주는 광택이 있고 질기며 두터워 최고의 비단으로 손꼽히였다.

오늘 녕변견직공장에서는 갖가지 비단천들이 많이 생산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주체43(1954)년 6월 이곳 로동계급이 만든 비단천들을 보아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녕변에는 유명한 약산동대가 있고 약산에는 진달래가 많다고 하시면서 진달래꽃무늬가 있는 천은 《약산단》, 흐르는 강물처럼 은근한 무늬가 있는 천은 구룡강의 이름을 따서 《구룡단》이라고 이름지어주시였다.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연구사 리국성

신평금강계곡의 아침

조국의 명승지들을 찾아서 (13)

- 독특한 경치를 자랑하는 신평금강 -

조국에는 천하절승 금강산과 더불어 금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명승지가 많다. 그중에는 황해북도 신평군 평화리의 만년협곡에 자리잡고있는 신평금강도 있다.

이 일대는 예로부터 경치가 아름다워 복숭아꽃속에 묻힌 골이라는 의미에서 도화동이라고 불리웠다.

해발 1 500m이하의 산들을 가진 중산성산지로서 남강과 그 지류에 의하여 심히 깎이워 생긴 깊은 골짜기들과 험준한 산악들로 이루어져있다.

절벽에 자리를 잡은 묘한 소나무들과 명소들, 물안개를 일으키며 떨어지는 폭포, 높은 곳에서도 바닥이 다 들여다보일 정도로 맑고 깨끗한 물은 이 일대의 경치를 한껏 돋구어준다.

명승지마다 자기의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듯이 신평금강을 대표하는 아름다움은 계곡경치이다.

대단히 좁은 골목들로 계곡을 이루고 절벽경사면이 층층이 단으로 뻗어있어 띠형태의 수림을 이루었으며 협곡마다에 사시절 마를줄 모르는 맑은 물과 폭포수가 조화를 이루는 그윽한 정서는 어디서나 찾아보기 드문 절경이다.

금방 펼쳐졌던 풍경이 열댓발자국 올라가보면 또 다른 풍경으로 안겨오고 앞으로 보면 막힌것 같던것이 그곳까지 가면 또다시 새로운 풍경이 시작되는것이 신평금강이 자랑하는 계곡미이다.

신평금강의 8대계곡중의 하나인 옥류동계곡 하나만 놓고 보아도 서로 손을 맞잡을듯 물우에 쌍벽을 이루고 마주서서 련면히 뻗어나간것이 마치 수림사이로 물이 흐르는것 같기도 하고 물우에 푸른 숲이 통채로 떠있는것 같기도 하다.

이밖에도 장쾌한 구룡폭포를 비롯하여 형형색색의 대조적인 폭포들로 이루어진 금강폭포골은 각이한 기암들과 어울려 신평금강의 경치를 한층 돋구어준다.

신평금강은 평양—원산관광도로상에서 려행자들을 위한 도중휴식장소로, 관광지로 훌륭히 꾸려져있다.

본사기자 김성경

상 식

생강의 치료효과

관절염을 앓을 때 매일 생강을 5g이상 먹으면 좋다. 깨끗한 생강을 엷게 썰어 식초를 약간 두고 먹기도 한다. 석달동안 쓰는것이 좋다.

간경변때 짓찧은 마른 생강을 천주머니에 넣고 물을 부은 다음 진하게 끓인다. 이 끓는 물에 두터운 세수수건을 적신 다음 물기를 짜서 하루 여러번 간부위를 찜질한다.

돼지고기를 먹고 체했을 때 생강즙을 내여 먹거나 마른 생강을 한번에 12~15g정도 달여먹는다.

미친개에게 물렸을 때 생강즙을 내여 먹으면 개독이 곧 풀린다. 또는 물린 자리에 생강즙을 바르거나 생강을 말리워 가루내여 붙여도 된다.

* * *

명승지입구

도화동골의 내가

초대바위

금강골에서 본 단풍골

남포시의 력사유적을 찾아서 (5)

- 련꽃무덤 -

련꽃무덤은 남포시 강서구역 태성리에 있는 5세기초에 축조된 고구려의 벽화무덤이다.

무덤무지의 직경은 27m, 높이 7.5m로서 큰 무덤이다.

무덤의 내부는 안길, 앞칸, 앞칸에서 안칸으로 통하는 사이길, 4개의 감(벽장처럼 만든것), 안칸으로 되여있다.

무덤은 남쪽으로 향한 네모형의 전형적인 고구려돌칸흙무덤이다.

무덤의 안길은 앞칸 남쪽 중앙에 크게 나있다.

앞칸은 동서길이 5.12m, 남북너비 2.49m의 장방형이며 바닥에서 천정까지의 높이는 3.48m이고 평행고임천정을 하였다.

앞칸의 북쪽벽 중앙에 안칸으로 들어가는 사이길을 만들었다.

감은 앞칸의 동, 서벽과 안칸으로 들어가는 사이길 좌우측에 하나씩 4개를 냈다.

안칸은 한변이 4.42m인 정방형이며 바닥에서 천정까지의 높이는 4.15m이고 평행삼각고임천정을 하였다.

무덤칸안에는 회벽을 하고 그우에 인물풍속도를 그렸다.

우선 눈에 띄우는것이 련꽃무늬인데 앞칸의 천정 세 구간마다 검은색 또는 검은자주색으로 테두리를 뚜렷하게 두르고 곱게 색칠을 한 활짝 핀 련꽃무늬를 크게 그렸다. 이와 같은 련꽃무늬는 안칸의 천정 중앙에도 그려져있다. 이로부터 이 무덤을 련꽃무덤이라고 부르게 되였다.

앞칸과 안칸의 매 벽면에는 기둥과 두공, 도리를 그려 방안처럼 꾸몄으며 안칸의 남쪽벽에는 천인(하늘에 산다는 환상적인 사람), 봉황새 등이 그려져있다.

련꽃무덤은 무덤칸이 크면서도 구조가 째이고 벽화들이 재치있게 배치된것으로 하여 고구려의 건축술과 회화술을 연구하는데서 가치있는 자료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상 식

배추의 유래와 재배

배추에 대한 기록은 13세기에 편찬된 고려의학고전인 《향약구급방》에 처음 서술된것으로 본다.

지난 시기 배추를 숭 또는 백채라고 하였는데 숭과 백채는 배추의 한자표기이다. 민간에서는 배채 또는 배차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세월이 흘러오는 과정에 배추로 불리우게 되였다.

17세기말에 편찬된 《후생록》에는 가지, 부루, 무우, 숭채(배추), 오이, 파, 고추, 마늘, 생강, 들깨의 재배방법이 상세히 소개되여있다. 19세기부터는 품종이 좋은 배추가 재배되기 시작하였다.

배추가 재배되면서부터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전통적으로 만들어오던 무우김치의 가공방법을 적용하여 초기에는 백김치, 배추절임 등을 하였으며 고추가 리용되면서 고추, 젓갈 등을 김치소로 넣어 통배추김치를 만들어 식생활을 풍성하게 하였다.

* * *

사 화

연안성에서의 맹세 (1)

임진년(1592년) 5월 초사흘 새벽, 광나루일대의 방비태세를 보러나갔던 부원수 신각의 일행이 탄 배가 강심에서 나루도 아닌 강기슭으로 물결을 헤가르며 쏜살같이 들이닿았다.

신각은 배에서 내리자 말고삐를 나꿔채며 나는듯이 말에 올라앉아 채찍을 갈기였다. 말은 큰길쪽으로 무섭게 달리였다. 그뒤로 관속들의 말이 따랐다. 붉은 갑옷을 입은 신각의 말을 선두로 다섯필의 준마가 먼지를 뽀얗게 일구며 멀리 바라보이는 제천정을 향해 한줄로 달리였다. 왜적의 척후가 벌써 한강이남 10리지경에 나타났다는 한성변방기찰의 통보가 들어왔던것이다.

제천정앞에 이르러 신각이 말을 세웠다. 뒤따르던 말들도 그의 뒤에 우뚝우뚝 섰다.

신각은 가쁜 숨을 누르며 한 비장에게 침착하게 말하였다.

《사태가 급하네. 자네는 나팔을 불어 군사들을 빨리 모이게 하고…》 다른 비장에게 시선을 옮기며 《자네는 보군(보병), 수군 모두 출전준비를 갖추고 군령을 대기하라고 전하게. 빨리!》

신각은 종사관(조선봉건왕조초기부터 임진조국전쟁까지의 기간에 포도청과 각 도병영에 두었던 한 벼슬) 심우정에게 이후 빈틈없는 처사를 당부하고 제천정으로 들어갔다.

부원수 신각, 류도장 리양원, 도원수 김명원 그리고 몇명의 대장, 편장, 종사관들이 적을 막아치울 계책을 상론하기 위하여 제천정에 모여앉았다. 부원수 신각의 제의에 의하여 열린 막료들의 모임이였으나 회의분위기는 처음부터 몹시 어색하였다. 그것은 도원수 김명원이 응당 책략을 세우고 막료들의 의견을 들어 일을 처사할 대신에 처음부터 아닌보살을 하고있기때문이였다.

김명원의 속을 손금보듯 들여다보고있는 신각은 한성을 지키느냐, 원쑤들에게 내주느냐 하는 위기에 처한 지금 더이상 군사등급에 구애되여 지체할수가 없었다.

모임에 참가한 막료들도 이 어색한 분위기속에서 갈피를 못잡고 두사람의 얼굴을 지켜보며 좀체로 입을 열지 않았다.

이때 밖에서 종사관 심우정이 들어와 신각에게 전투준비를 마치고 각군 모두가 대령중이라고 아뢰였다. 그리고는 신각의 옆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다.

잠시후에 척후로 나갔던 군졸 하나가 말을 타고 들어서더니 부복하며 아뢰였다.

《대감님께 아뢰오— 장사진을 이룬 왜적의 무리들이 계속 들이닿아 한강 저쪽 기슭에 새까맣게 모였는데 그 수가 수만에 이르오. …》

상좌에 앉았던 도원수 김명원이 척후의 보고를 듣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안절부절 못하였다.

주위의 시선이 자기에게 쏠리자 김명원은 발딱 일어나며 한마디 내뱉았다.

《내 중군을 거느리고 지체없이 측면에 진을 치고 기각지세를 이루리니 부원수는 종사관들과 함께 강변에서 왜적의 도하를 방비하오.》

그리고는 그달음으로 총총히 다락을 내려 어데론가 가버렸다.

종사관 심우정은 어안이 벙벙하여 벌떡 일어나 어쩔바를 몰라하다가 신각을 향하여 심중한 표정으로 물었다.

《대감님, 도원수를 붙잡지 못하구 왜 그대루 보내시오이까.》

신각은 대답대신 쓴입만 다시였다.

투구에 갑옷을 갖추어입은 부원수 신각이 오늘따라 더욱 무겁게 보였다.

깊은 시름에 잠겨 감고있던 눈을 조용히 뜬 그는 종사관들과 더불어 적의 도하작전을 파탄시키고 한성을 방어할 계책을 토론하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한동안 흘러갔다.

이때 군관 하나가 다급히 제천정앞으로 들어와 말에서 뛰여내렸다.

《아뢰오— 왜군이 강건너편의 배들을 몽땅 들추어내여 강에 띄우고 한편 사방에서 나무를 모아다 떼를 무어 당장 쳐들어올 기세를 보이고있사옵니다.》

그는 숨이 턱에 닿아 말끝을 맺는둥마는둥 하고 고개를 들었다.

뒤이어 키가 륙척이나 되는 석주가 융복(군복)을 입고 나타나 아뢰였다.

《도원수대감께서 전선(배)들을 몽땅 불지르고 군기와 식량들을 모조리 강속에 처박아넣는 통에 군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소이다.》

석주의 말에 신각의 무거운 표정은 삽시에 이그러지고 눈에서는 불이 번쩍 튀였다.

* * *

야화

쌀 한짐

옛날 어느 마을에 황가성을 가진 욕심쟁이 지주가 있었다.

이놈은 고래등같은 기와집에서 고간마다 쌀가마니를 가득가득 채워놓고 저혼자 거들먹거리며 잘살았다.

그러나 어떻게나 욕심이 많았던지 머슴군들을 실컷 부려먹고도 품삯을 줄 때면 쌀 몇되박이 아까와 바들바들 떨군 하였다.

그러던 어느해 가을날이였다.

누구인지 이른아침에 찾아와 지주집 솟을대문을 쾅쾅 두드렸다.

《계십니까? 주인 계십니까?》

뚱뚱보 황가는 뒤뚝거리며 밖에 나가 대문을 열었다. 대문밖에 웬 젊은이가 우뚝 서있었다. 키가 구척이나 되고 가슴팍이 쩍 버그러진 젊은이였다.

젊은이는 황가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이 집에서 일군을 쓰지 않겠소?》

《그래, 하루 품삯을 얼마나 받겠소?》

황가는 품삯부터 물었다.

그러자 젊은이는 별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주는대로 받겠다고 대답했다.

황가는 얼른 마음속으로 주먹구구를 해보았다.

(음, 보아하니 어리무던한 자식이로군. 힘꼴이나 쓸 이 자식을 어떻게 부려먹는다? 쌀 두말을 줄가? 아니, 그건 너무 많아. 그렇지, 이렇게 해야겠군.)

황가는 젊은이에게 말했다.

《여보게, 오늘 하루동안에 마당질을 다 해줄수 없겠나? 우리 마당에 쌓아놓은 저 벼낟가리가 보이지. 저것만 털면 되네. 그러면 점심 한끼를 푸짐히 먹여주고 쌀 한짐 주겠네. 어떤가?》

《그럼 그렇게 합시다.》

젊은이는 순순히 대답하고나서 마당가에 무져놓은 산더미같은 벼낟가리를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그러고나서 황가보고 도리깨를 달라고 하였다.

황가가 도리깨를 가져다주자 젊은이는 벼단을 한 뒤번 후려쳐보더니 홱 내던졌다.

《이것도 도리깨요? 아이들 장난감같은걸로 어떻게 저 많은 벼단을 턴단 말이요.》

젊은이는 사방을 둘러보고나서 지주집 기둥감보다 더 굵은 나무와 서까래감보다 더 굵은 나무를 가져다가 눈깜박할새에 큰 도리깨를 만들었다.

《휙- 쿵! 휙- 쿵!》

젊은이는 큰 도리깨를 휙휙 내둘러 산더미만큼 쌓아놓은 벼단을 잠간동안에 다 후려쳤다.

황가는 눈이 휘둥그래져서 쳐다보기만 하였다. 어느 사이엔가 하늘높이 솟아있던 벼낟가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대신 넓다란 마당가에 낟알산이 우뚝 솟아올랐다.

젊은이는 이마에 흐르는 주먹같은 땀방울을 쓱쓱 문지르고나서 황가보고 소리쳤다.

《왜 그렇게 멍청히 보고만 있소? 이젠 마당질을 다했으니 벼를 가마니에 얼른 담아야 할게 아니요. 어서 가마니나 가져다주시오.》

황가는 고간에 넣어두었던 새 가마니를 퉁구리채 가져다주었다.

젊은이는 황가가 가져다준 가마니 한개를 쳐들고 웬일인지 껄껄 웃었다.

《아니, 요것도 가마니라고 가져왔소? 요렇게 작은 가마니에 어떻게 이 많은 벼를 담는단 말이요.》

젊은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팔뚝보다 굵은 새끼를 썩썩 꼬더니 잠간사이에 마당만큼 큰 가마니를 짰다. 그리고는 그 가마니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벼를 한꺼번에 퍼담았다.

황가는 젊은이가 며칠이 걸려도 못 끝낼 벼마당질을 한낮도 걸리지 않아 해치우자 너무 좋아 입이 헤벌쭉해졌다.

젊은이는 황가보고 약속한대로 한짐 지고갈 쌀을 달라고 했다.

황가는 쌀 한말을 주었다.

그러자 젊은이는 성이 나서 눈을 뚝 부릅떴다.

《여보, 이게 한짐 지고갈 쌀이란 말이요? 그건 당신네 한짐이요. 내 한짐은 일년 먹을 량식이란 말이요.》 하고 툭 쏘아주고나서 자기가 생각한 쌀 한짐을 지고 땅을 쿵쿵 울리며 대문밖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다.

* * *

조선속담
(행복)

- 무소식이 희소식

소식이 없는것은 무사히 있다는 뜻으로서 그것이 곧 기쁜 소식이라는것을 이르는 말.

- 고생끝에 락이 온다

무슨 일이나 간고분투하여 힘든 고비를 이겨내면 마침내 그 보람이 있어 즐겁고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 장맛이 단 집에 복이 많다

장의 맛이 좋은 집은 장을 담그는 주부의 알뜰한 살림살이솜씨에 의하여 집안도 또한 행복한 법이라고 일러오는 말.

- 복속에서 복을 모르다

너무 행복에 겨워 취하게 되면 불행하던 지난날의 처지를 잊어버리거나 오늘의 행복을 모르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것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 * *

동심에 비낀 《자한당》

남조선에서 《자한당》해체를 요구하는 각계층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있다.

그러한 속에 《자한당》해체를 요구하는 노래가 창작되여 각계층의 지지와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초등학교, 중학교학생들로 조직된 청소년통일선봉대가 《자한당》의 해체를 요구하는 노래 《〈자한당〉해체 수자송》을 지었다. 노래는 1부터 10까지의 수자풀이로 되여있는 가사에 《자한당》을 1초라도 보지 않으면 신이 난다고 하면서 여기저기를 돌아치며 말썽을 부리는 역적당을 누구나 싫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민족의 통일을 방해하지 말고 10초내에 당장 사라질것을 요구하였다.

청소년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이 인터네트로 퍼지자 남조선 각계층은 《우리들이 꼭 〈자한당〉해체해서 너희들 세대에는 그런 놈들이 없는 세상 만들어줄게.》, 《아주 시원하다.》, 《아이들이 원하는건 들어주어야지요.》 등의 글을 올리고 모두가 이 노래를 부르자고 하면서 지지와 격려를 보내였다.

청소년통일선봉대는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2019자주통일대회》에서 《〈자한당〉해체동요-만화주제가련곡》을 불러 또다시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것이 바로 남조선의 청소년들과 인민들의 눈에 비낀 《자한당》의 모습이고 가련한 처지이다.

어린이들의 천진하고 순결한 맑은 눈동자에는 진실만이 담기고 동심은 그 어떤 위선과 가식으로도 가리울수 없는것이다.

남조선의 《자한당》이 청소년들에게서까지 조소와 규탄, 저주와 환멸의 대상으로 되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이다.

최근에만도 보수세력의 반공화국대결망동과 친일매국행위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분노가 날로 높아가고있다.

불순한 《안보》소동으로 북남관계의 파국을 부추기고 천년숙적 일본의 리익을 대변하는 매국적추태를 부린것으로 하여 민심의 저주와 배척을 받고있는것이 바로 《자한당》인것이다.

사실 《자한당》세력은 저들의 정치적야욕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일반주민들의 민생과 민권은 물론 청소년들의 미래까지도 처참하게 란도질해왔다.

력대로 남조선보수세력은 《정권》안보와 부귀영화만을 추구하면서 앞날에 대한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그들을 절망과 타락의 나락에로 몰아갔다. 남조선에서 수십년간 이어져온 보수《정권》하에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배움의 꿈을 버려야 했으며 등록금마련을 위해 식당이나 유흥업소에서 품팔이를 하고 지어 목숨까지 잃었다.

남조선에서 《자한당》이 얼마나 못된짓만 골라했으면 아이들까지 역적당에 등을 돌리고 그 해체를 요구하는 노래를 부르고있겠는가. 그들은 《자한당》과 같은 보수세력을 쓸어버리는것이 자기들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길임을 잘 알고있다.

《자한당》처럼 많은 죄악을 저지른 역적무리는 일찌기 없었다. 특히 보수세력이 《세월》호참사로 잃어버린 생때같은 자식들을 목놓아부르는 부모들을 《시체장사군》으로 모독한것은 오늘도 남조선의 청소년들을 치솟는 분노로 가슴터지게 만들고있다.

오죽했으면 아름다운 꿈과 희망만이 가득차있어야 할 그들의 마음속에 《자한당》해체가 소원으로까지 자리잡게 되였겠는가.

《자한당》세력들을 단 1초라도 보기 싫어 반역당해체를 절규하는 청소년들의 노래는 미래의 주인공들이 역적당에 내린 준엄한 사형선고이며 반역당을 기어이 력사의 무덤속에 처박고 새 정치, 새 생활을 실현해나가려는 민심의 반영이다.

민심에 역행하고 대세를 거스르며 나라와 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죄악만을 저지른 《자한당》은 남녘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절대로 면할수 없을것이다.

본사기자

유모아

끝없는 욕심

어떤 사람이 남의 집 대문을 급하게 두드리더니 문을 여는 사람을 보고 다짜고짜로 물었다.

《당신이 오늘 아침 얼음구멍에서 나의 아들을 구원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안해할건 없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아주 겸손한 태도로 대답하였다.

《그런데 내 아들의 모자는 어디에 있소?》

《?》

세계가 지켜보는 일본, 언제까지 뻔뻔스러울것인가 (2)

도이췰란드의 용기, 일본의 도덕적저렬성

1970년, 도이췰란드(이전 서부도이췰란드)의 브란트총리가 뽈스까의 유태인희생자기념비앞에 섰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였다. 그는 국가를 대표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였다.

도이췰란드의 용기있는 행동에 세인은 박수를 보냈다.

유럽나라들도 도이췰란드를 향해 안으로 굽어만 들던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그후에도 도이췰란드의 대통령과 총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2차 세계대전당시 나치스에 의한 학살 등 전쟁범죄에 대해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했다.

도이췰란드의 현 메르켈총리도 와르샤와의 유태인희생자기념비앞에서 진심으로 피해자들에게 애도와 사죄를 표시하고 《도이췰란드는 전쟁당시를 기억할 〈영원한 책임〉이 있다.》고 다시금 선언했다.

나치즘의 부활을 방지하기 위해 도이췰란드에서는 나치즘을 미화하고 선전하는 행동이 비법으로 간주되고있다.

과거에 대한 추적은 지금도 계속되고있다. 이미 피해국가들과 개별적사람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한 도이췰란드는 과거와 같은 죄악과 불행이 되풀이되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지금도 세계의 수십개 나라와 수백수천만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이어가고있다. 뿐만아니라 전시범죄 시효자체를 페지해버리고 90살이 지난 고령이든 누구든 관계없이 나치스범죄자들에 대해 준엄한 선고를 내리고있다.

이렇게 도이췰란드는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죄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두터이하고있다.

그런데 일본은?

일본은 피비린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 배상은커녕 조선과 아시아나라들에 대한 침략행위를 식민지국가들을 위한 《해방전쟁》으로, 《문명》과 《번영》을 가져다준 《진출》 등으로 외곡하는데 여념이 없다.

과거 일제에 의한 침략과 략탈, 학살의 만행들이 아시아인민들의 기억속에 생생히 새겨져있는데도 말이다.

《독도는 일본고유의 령토》라는 뿌리깊은 망언도 과거 조선에 대한 저들의 침략력사를 정당화하는것이다.

한때 일본은 《고노담화》, 《무라야마담화》등에서 과거범죄와 관련하여 형식상《사죄》하고 《반성》하는듯 한 냄새를 피우기도 하였었다. 그것마저도 그때뿐이였다. 정권이 바뀌여 과거범죄를 다시 부인하고 합리화하는 철면피한 행동에 계속 매달리였다.

대를 이어가는 일본정치인들의 집단적량심의 마비는 가히 절망적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일본의 군국주의적광기는 아베가 수상의 자리에 앉은 이후 절정을 이루어왔다. 그가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있지 않다.》, 《어떤 행위가 침략에 해당되는가에 대하여서는 력사가들의 론의에 맡겨야 한다.》, 《일본인구의 80%가 전후세대로서 그들에게 사죄를 계속할 숙명을 지워서는 안된다.》고 한 망언은 침략의 력사를 되풀이하려는 일본의 뿌리깊은 야욕을 잘 보여준다.

도이췰란드가 과거범죄에 대해 시효가 없는 무조건적인 사죄와 배상을 세기를 이어 해나갈 때 이렇게 일본은 주먹안의 미꾸라지처럼 과거의 책임에서 빠져나가려고만 해왔다.

한가지 간단히 언급할것이 있다. 일본의 조선침략력사에 《운양》호사건이라는것이 있다. 1875년 8월 일제가 군함 《운양》호를 강화도에 침입시켜 무장도발을 감행한 사건이다. 8월 21일 강화도 초지진포대로 접근하였다가 수비병들에 의해 되게 혼쭐이 났던 《운양》호는 그 《보복》을 한다며 23일에는 비교적 방어력이 약한 영종도에 침입하여 무고한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나중에는 불을 질러 섬을 완전히 페허로 만든 후 도망쳤다.

이런 야만행위를 감행하고도 도리여 조선봉건정부에 《사죄》를 요구했던 뻔뻔스런 일본이다.

재카나다동포 리문식

호평받는 모피제품들

평양대흥모피무역회사는 모피제품들을 전문적으로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

4만 9 700여㎡의 부지면적에 모피제품생산에 필요한 설비들을 충분히 갖추어놓은 회사에서는 년간 수십만장의 털가죽들을 가공처리하고있다.

회사에서 털가죽으로 만든 외투, 모자, 목도리를 비롯한 각종 제품들은 국내는 물론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품질중시, 신용제일주의를 첫째가는 경영전략으로 내세우고있는 평양대흥모피무역회사는 핵심기술분야에서 첨단을 돌파하며 회사에 관심을 가지는 세계 여러 나라 회사, 단체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귀중히 여기며 더욱 발전시켜나가고있다.

련광정의 겨울　　본사기자 김성철

우리 민족의 우수한 건축술을 보여주는 평양에 있는 련광정의 지붕마다에 흰눈이 소복이 쌓였다.

창전거리에 넘쳐나는 인민의 웃음소리와 함께 민족의 유구한 력사를 보여주는 련광정의 설경은 볼수록 아름답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ㄱ—1980319
http://www.korean-books.com.kp(조문, 로문)　전자우편(E-mail): flph@star-co.net.kp